위대한 우리 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여
옛 토성랑의 새 모습
금수강산
9
주체111(2022)
루계 제397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2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1(2022)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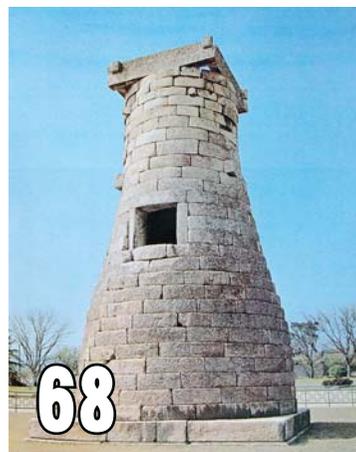
제397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경루동의 주인들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일떠선 경루동.

호화주택구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의 미소가 넘쳐흐른다.

본사기자 김성철

편집: 최은혁, 서철남, 리경훈 ㄱ-2280165

위대한 우리 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이 소집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8월 10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 회의장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중대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으로 불면불휴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을 방역대전의 종국적승리에로 줄기차게 이끄시는 불세출의 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와 리일환동지, 박태성동지, 김여정동지, 리창대동지, 박수일동지, 김영환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책임일군들, 방역, 보건부문의 일군들, 국경지대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당지도소조 성원들, 봉쇄임무를 수행하고있는 군부대 지휘성원들,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 비상방역사업에 기여한 지원자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국방성 비상방역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는 력사적인 총화회의에서 중요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방역상황을 개괄분석하시고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령내에 류입되였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엄숙히 선포하시였으며 이번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 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처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라고 확언하시면서 엄청난 보건위기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앞당김에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며 분투, 활약한 전국의 방역부문, 보건부문 일군들과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상위기상황하에서도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주요공업부문에서 계획된 올해의 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되고 전반적인 국가사업의 원활성을 보장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 교훈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시고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장벽을 철통같이 견지하며 방역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중요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가자고 호소하시면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모두의 귀체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축원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이어 국가비상방역사령관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충길동지, 평양시비상방역사단장인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책임비서 김영환동지, 국방성비상방역사단 부사단장인 국방상 리영길동지, 내각부총리 리성학동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동지가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는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일체로 뭉쳐 력사의 그 어떤 격난도 정면돌파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다시한번 과시한 승리자들의 대회합으로, 국가방역능력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데 공헌한 방역 및 보건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충심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이룩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투쟁에서 배가의 성과를 내는것으로써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하고 조국의 줄기찬 전진발전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상최악의 위기를 과감히 이겨낸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기개로 귀중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우리의 생활, 희망넘친 미래를 더욱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　　*　　*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체111(2022)년 8월 10일

전국의 방역 및 보건부문 일군들!

국경과 전연, 해안지대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군부대지휘관동무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와 비상방역사단, 련대, 대대의 지휘성원동무들!

방역사업에 기여한 지원자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

그리도 간고했던 방역전쟁이 바야흐로 종식되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였습니다.

공화국령토에 악성전염병이 침습한 때로부터는 100여일, 전염병이 전국적범위에로 급속히 확산되는것에 저항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시킨 때로부터는 91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전당, 전국, 전민은 강의한 의지와 필사적인 노력으로써 엄혹한 전염병위기를 타개하고 방역형세를 안정회복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부문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나라에 조성되였던 악성전염병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괄해보면 악성전염병이 전파되기 시작한 초기 수십만명에 달하였던 하루유열자수가 한달후에는 9만명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7월 29일부터는 악성비루스감염자로 의심되는 유열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는 모두 74명으로서 치명률에 있어서 세계보건계의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될 매우 낮은 수치가 기록되였습니다.

전국적인 감염자발생수는 어제까지 련 12일간 령을 기록하였으며 마지막완쾌자가 보고된 때로부터도 7일이 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 령토를 최단기간내에 악성비루스가 없는 청결지역으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비상방역투쟁의 목표가 달성되였습니다.

국내에서 악성전염병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된것도 방역위기종식을 확신할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 됩니다.

우선 마지막감염자들이 모두 완쾌되고 핵산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명되였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였으며 전사회적으로 방역규정준수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고 소독사업이 더욱 강화되여 악성비루스가 전파될수 있는 각이한 경로들이 차단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가 류입된 경로를 과학적으로 최종확증한데 따라 이에 대한 차단과 봉쇄, 감시가 보다 강화되고 오물들을 발견하는 즉시 수거, 소각, 매몰처리하는 질서와 수입물자들에 대한 방역학적안전성을 담보하는 사업이 심화

되여 외부로부터 그 어떤 변이비루스도 류입되지 못하게 한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악성전염병확진자가 모두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 《BA.2》에 의한 감염자로 판명됨으로써 그 어떤 새로운 변이형이나 아형도 발생하거나 들어오지 않았다는것이 확증되였습니다.

제반 사실로 보아 우리 나라에 조성되였던 악성전염병사태가 종식되였음을 충분히 확신할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이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이겨내고 끝끝내 되찾은 안정과 평온을 기쁘게 확인하는 이 시각 당중앙위원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령내에 류입되였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전세계를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넣은 세계공공분야의 최고의 위험사태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우리가 직면했던 가장 중대하고 위협적인 도전을 이처럼 짧은 기간에 소거해버린것은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긴장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등급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불굴의 신념과 강의한 인내, 진정한 단결로써 안위존망의 사태에서 자기자신과 모두의 안녕과 평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내고 이번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동지들!

기쁨과 긍지가 한없이 차넘치는 시각이지만 왜서인지 이 자리에 서고보니 여기에 오기까지 그리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형언할수 없는 중압감과 책임감이 다시금 되새겨집니다.

지나온 91일간은 우리의 투쟁력역에서 결코 길지 않은 나날이지만 하루하루가 1년, 10년맞잡이로 느껴지는 숨막히는 긴장의 련속이였으며 말그대로 준엄한 전쟁이였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발생초기부터 초특급의 비상방역장벽을 구축하고 완강히 견지하면서 2년나마 평온을 유지해오던 우리 나라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였다는 현실앞에 솔직히 심정은 착잡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들 때조차 나를 다잡아주고 항상 떠밀어 일으켜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명씩 감염자가 급증하는 눈앞의 위기는 나라의 운명이 이대로 결딴나는가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내다보며 최대로 각성하고 결사적으로 분발해야만 하는 매우 다급한 국가최대의 위기사태였습니다.

방역기반과 보건토대가 취약하고 방역경험도 없는 형편에서 국가의 안전과 수천만 인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횡포한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을 이기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분1초가 다급한 시간쟁취전에서 이에 대한 반응력조차 없었던 국가기관들을 기민하게 움직이고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만들자면 어떻게 할것인지, 또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전반사업과 인민생활에 겹쳐든 극난한 시련의 국면을 역전시키자면 과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하는 이 무거운 력사적과제는 우리 당의 령도력을 다시한번 랭혹하게 검증하는 시금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맞다든 이러한 국난앞에서도 우리 당은 자기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자기 본연의 자세와 립장에 충실하였으며 자기 특유의 결단성있고 강력한 정치적지도력을 정확히 발휘하면서 국가의 방역기강을 다졌으며 비루스박멸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였습니다.

동지들!

당과 인민이 혈연적으로 결합된 굳건한 믿음은 위대한 기적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게 된 엄연한 현실은 우리의 정책이 옳았고 우리의 투쟁방침이 정확하였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처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확언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관점과 립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원칙입니다.

악성전염병이 경내에 류입된 즉시 우리 당과 정부는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는것과 함께 전염병발생상황관리와 전파근원차단, 인민생활안정을 비롯하여 매우 적시적이고 위기를 타개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바른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을 담보할수 있는 전인민적인 고도의 조직성과 자각적일치성, 의식적분발이 없이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할수 없는것입니다.

결코 쉽게는 쟁취할수 없었던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며 일치단결로써 받들어준 우리 인민들의 수고에 대하여 제일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각방으로 겹겹이 구축해놓은 방역장벽에 빈틈이 생겨 일단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 확산된 긴급형세에서 급선무로 나선것은 전염병전파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파근원을 최단기간내에 없애는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전국적으로 지역별차단봉쇄와 단위별격폐조치를 강력히 실시하는 한편 전주민집중검병검진을 엄격히 진행하여 유열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격리시켜 치료하는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일부분이나 몇개 지역이 아니라 전반령역에서 모든 래왕과 이동이 금지되고 정상적인 사업과 활동의 률동이 파괴되여 국가사업뿐 아니라 매 가정, 매 공민들의 생활에서 이전보다 난관과 애로가 몇배로 가중된다는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비상방역과 관련하여 시달되는 모든 규정과 지시를 우리 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라를 위한 애국사업, 자기 가정과 자신을 위한 응당한 의무, 본분으로 간주하면서 자각적으로, 량심적으로 준수하고 무조건 실행하는 훌륭한 기풍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공민들이 일신상의 문제와 가정사를 뒤로 미루는것을 흔연히 여기였으며 사소한 동요나 나약성, 비관과 공포도 없이 방역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특유의 강인성을 더욱 뚜렷이 발휘하였습니다.

이런 인민들을 하루빨리, 한시바삐 악성병마의 위험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과 정부는 국가예비약품을 해제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긴급추진함으로써 모든 유열자들에게 필요한 약품이 가닿을수 있게 하였으며 과학적인 치료전술과 방법을 확립하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우리는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지 5일째부터는 전국적인 전염병확산세를 억제, 관리가능한 안정적인 국면에로 돌려세우고 비상방역전의 승세를 확고히 틀어쥘수 있게 되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덜어주고 국가사업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방역정책과 지침을 능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최대비상방역기간을 돌이켜보면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고 국가적으로 약품보장과 공급대책을 강하게 세운것 그리고 방역사업에서 엄격성에 과학성을 결합하고 주민생활보장대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세운것이 악성비루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대승을 앞당기는데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만이 가지고있는 고도의 조직성과 자각적일치성이 당과 정부의 옳바른 방역정책과 지침을 철저한 집행과 완벽한 결과에로 이어지게 하였다는데 있습니다.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심에 있어서나 나라사정에 대한 리해심에 있어서 그리고 공민적 의무에 대한 성실성과 곤난을 이겨내는 인내력에 있어서 우리 인민만큼 훌륭한 인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왁찐접종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기승을 부리던 전염병확산사태를 이처럼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방역안전을 회복하여 전국을 또다시 깨끗한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만든것은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식의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방역정책과 이를 집행함에 일치하게 호응해나선 전민합세의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는 또한 우리 사회주의제도특유의 우월성과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여있기때문에 그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국, 전민이 일시에 떨쳐일어나 강력히 대처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국가의 결정지시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일사불란하게 보조를 맞추는것이야말로 우리 사회특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제도적우월성입니다.

여기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정신과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위해주는 덕과 정이 전사회적으로 지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제도는 남들이 가질수 없는 불가항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제도적바탕이 있기에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당과 정부의 결정이 시달된 즉시 전국을 시, 군별로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폐하는 조치가 철저히 실행되였으며 보다 강도높은 방역규률과 질서, 기강이 확립되여 금후 방역전에서 전략적주도권을 쥘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총발동되여 외따로 떨어진 초소와 가정들에까지 약품을 보장하면서 열병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았으며 봉쇄기간 각종 이동봉사대를 내오고 주민들의 생활상불편을 최대한 덜어준것도 우리 제도가 아니고서는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인민적성격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양되였습니다.

비록 우리 보건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미약하지만 이미 확립된 우리 식의 의료봉사체계가 효과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방대한 방역과제, 치료과제가 성과적으로 달성될수 있었습니다.

의사담당구역제와 구급의료봉사체계, 먼거리의료봉사체계와 같은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에 토대하여 유열자장악과 전주민검병검진사업이 매일 진행되고 격리 및 치료가 정확히 실시된것은 전국적범위에서 방역형세의 안정화를 획득하고 감염근원을 없애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방역전쟁의 승리를 안아오는데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고 공적을 세운것은 방역부문과 보건부문의 일군들입니다.

설사 본연의 임무라 할지라도 위험한 악성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일선참호에 서있는 방역부문, 보건부문 일군들의 부담과 고생이 제일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보건전사들은 당과 국가가 맡겨준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방역전에 서슴없이 온몸을 내대고 누구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으며 자기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환자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무한한 희생정신,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성실성이 우리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이 자기를 지탱하고 악성병마와의 싸움에 헌신분투할수 있게 한 정신적힘이였습니다.

최대비상방역기간 전국적으로 주민세대들과 인원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진행하고 유열자들을 찾아내여 완쾌시키는 사업에 매일 보건일군 7만 1, 200여명, 위생열성일군 114만 8, 000여명이 동원되고 수천명의 보건부문경력자들이 자원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이들모두가 이러한 정신으로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으로 수도에 파견된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인민사수의 전방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습니다.

당의 신임과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보답하려는 충성의 열정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된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도의 약품공급이 안정되고 전염병형세가 역전되였을뿐 아니라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신뢰와 군민일치의 고귀한 전통이 보위되였습니다.

나는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당중앙의 명령을 훌륭히 관철한데 대해서와 수도시민들이 우리 군대를 자기 생명의 은인으로, 친혈육으로 진실하게 간주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번 보건위기속에서 감염자수에 비해 사망자수가 특별히 적은것은 우리 방역, 보건일군들이 한계를 초월하는 노력과 헌신으로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 보건정책을 결사관철하였기때문입니다.

전국의 방역, 보건일군들은 평소의 몇십배에 달하는 과중한 부담속에서도 매일 24시간 방역초소와 치료초소를 떠나지 않고 심신을 깡그리 바치였습니다.

당과 인민에게 충직한 우리의 보건전사들속에는 앓고있는 자기 자식과 남편을 돌보기에 앞서 맡은 주민세대들과 환자들에게 정성을 쏟아부은 의사, 간호원들, 자체로 부족되는 의약품을 마련하고 생활필수품까지 준비하여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의료일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더욱 감동을 금할수 없는것은 자기의 병세를 잘 알면서도 인간생명의 수호자로서의 본

분을 먼저 생각하고 방역전의 승리와 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생의 마지막기력까지 다 바친 방역, 보건일군들의 소행입니다.

이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화선군의들과 간호원들, 천리마시대 붉은 보건전사들과 다를바 없는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일군, 애국자들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최대비상방역기간뿐 아니라 비상방역전이 시작된 초시기부터 전연과 국경, 해안을 비롯한 나라의 방역초소들을 억척으로 지키고있는 전투원들의 헌신과 공로에 대하여서도 항상 생각하고있습니다.

당과 정부의 특명을 받고 비상방역전의 전초선들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당지도소조 성원들, 봉쇄차단근무에 동원된 수많은 군인들과 안전, 보위일군들, 로농적위군 대원들, 각지 방역초소 성원들이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지켜섰다는 책임감,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폭염과 폭우속에서도 온갖 애로를 인내하며 방역장벽을 철통같이 다지고 전사회적인 방역규률준수기풍을 세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최대비상방역기간에 보건부문 일군들과 방역전초선의 전투원들속에서 발휘된 희생정신은 우리당 투쟁사와 조국청사에 당당히 기록될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최대비상방역기간 우리 인민들속에서 더욱 뜨겁게, 강렬하게 발휘된 공산주의적인 미덕, 미풍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였습니다.

온 나라가 악성병마의 위협에 직면한 준엄한 시각 당과 정부의 제일 큰 근심은 수천만 인민들의 건강과 함께 강도높은 봉쇄차단조치로 어차피 우리 인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충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중앙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을 그 어떤 최신의학과학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승의 비결로 보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우리의 제일가는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을 더 높이 발양할데 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당과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집단주의와 인간애를 공기처럼 호흡하며 배양한 우리 인민들속에서 아름다운 소행들이 발휘되는것은 흔히 보게 되는 미담이지만 이번 방역전에 수놓아진 감동깊은 사연들은 우리 사회의 따뜻함과 귀중함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많은 가슴뜨거운 미담들과 고결한 인간상에 대하여 일일이 다 렬거할수 없는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것만 말하더라도 악성전염병에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약품과 식료품을 보내주기 위해 철야전투를 벌린 공장종업원들과 일군들도 있고 가산을 아낌없이 덜어내여 마련한 물자들을 합숙과 대학기숙사, 육아원, 애육원에 보내준 사람들도 있으며 방조가 필요한 세대, 곤난한 이웃들에게 사심없이 식량과 부식물, 필수품을 보내준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마운 지원자들은 중앙과 지방, 공장과 농어촌 그 어디에나 다 있으며 또 그속에서는 존경하는 전쟁로병동지들로부터 시작하여 평범한 근로자들, 인민반장들, 부양녀성들, 나어린 소년단원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다 찾아볼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곤난한 형편에서 자기보다 동지들과 이웃들,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더우기 자기는 배를 곯으면서도 성의를 다 바치는 이런 미덕의 세계는 결코 돈이나 재부로써는 진가를 헤아릴수 없는 우리 사회의 화목과 인간적뉴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당중앙과 뜻과 정을 같이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의 모습에서 나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커다란 힘을 얻었으며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곡경도 시련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였습니다.

온 나라가 당과 정부의 두리에 일심일체를 이루고 한결같이 움직이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덕과 정이 국풍으로 되여있는 이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이고 위력이며 바로 이로 하여 이번과 같은 류례없는 방역위기를 용이하게 타개하고 대승을 가져올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엄청난 보건위기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앞당김에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며 분투, 활약한 전국의 방역부문과 보건부문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며 방역장벽을 지켜 수고를 많이 한 모든 군인들과 일군들, 근로자들, 방역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성원한 지원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번에 비상방역전선에서뿐 아니라 경제전선과 국가사업전반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몇해째 지속된 방역상황에 덧씌워진 악성전염병사태는 국가사회생활과 경제건설에 막대한 장애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는 재난으로 되였지만 이 모든것을 완강히 극복하고 정상사업을 유지하면서 예견했던 발전속도를 드팀없이 보장한것 자체가 바로 커다란 승리로 되는것입니다.

우리 당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하여 선포하면서 우리 인민의 견인불발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믿고 비상방역전과 계획된 올해의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할것을 결정하였는데 이 과업이 철저히 관철되였습니다.

올해 경제사업의 급선무로 내세운 농업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영농공정들이 제기일에 원만히 수행되였습니다.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은 한해 농사에서 관건으로 되는 봄철에 시작된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장애로 되였으며 제일 바쁜 모내기철에 국가적인 로력지원도 예정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현의 첫해인 올해에 기어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려는 각오와 열의로 충만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열병도 이겨내고 방대한 모내기과제도 순수 자체의 힘으로 앞당겨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어려운 방역전투를 벌리고있는 인민들에게 희소식으로 되였습니다.

수도의 대규모살림집건설과 련포온실농장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떨쳐나선 전체 건설자들은 방역학적요구가 더 엄격해지고 수송과 자재보장이 순탄치 않은 조건에서도 계획된 공사일정을 줄기차게 추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 경공업부문에서도 로력보장, 자재보장이 여느때보다 곱절로 곤난하였지만 일별, 순별, 월별 생산계획을 기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제전반의 정체를 막고 올해 목표달성에로 크게 전진하였습니다.

비상위기상황하에서도 전반적인 국가사업의 원활성을 보장한것이 또한 귀중한 성과로 됩니다.

당, 행정, 경제기관들, 사법검찰부문과 안

전, 보위, 국방부문들에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하는데 맞게 비상시사업체계를 신속히 수립하고 허점과 공간, 편향을 찾아 대책하면서 자기 사업을 신축성있게 효률적으로 진행하는데서 실천적인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당조직들과 정권기관을 비롯한 각 부문과 단위 일군들이 당과 정부의 지시에 절대복종하고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집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고 인민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복무한다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실지행동으로 체득하게 된것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돌발적인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업에서는 결함과 교훈도 있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직면할수 있는 여러가지 위기에 원만히 대처하는데서 소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찾은 교훈은 두가지로 함축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사소한 방심과 해이도 허용하지 말고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해야 한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위기대응능력, 방역능력건설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부터 견지하여온 방역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이번 방역위기의 시발점으로 된 금강군 전연지대에서의 유열자발생도 그 지역내에서 얼마든지 차폐하고 억제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두명으로 시작된 악성전염병이 방역부문에 내재된 방심과 해이의 공간을 타고 수도권에까지 침습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수천수만의 인력을 투하하여 전연과 국경, 해안에 치밀한 봉쇄망을 펴고 전인민적인 방역형세를 조성하였는데 설마 악성비루스가 들어올 틈이 있기나 하겠는가고 자만방심, 자체위안하면서 탕개를 풀어놓고있은 그 자체가 이번과 같은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만도취, 안일해이, 설마병이 전염병의 초기류입상태를 판단할수 없게 눈을 흐려놓은 중요한 원인으로 되였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만일이라는 자세에 서서 사소한 이상징후도 국가의 운명과 직결시켜 고찰하면서 순발적인 대응력을 발휘하고 불의의 사태앞에서 침착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자신감있게 전개하였더라면 얼마든지 전국에로의 전염병확산을 피할수 있었을것입니다.

이번 방역전쟁을 치르면서 절실히 느끼게 된것은 과학적인 사고와 행동을 떠나 형식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사업태도와 일본새에 계속 매달린다면 앞으로 도래할수 있는 보건위기앞에 언제든지 당할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이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초기에 누구나 느낀것이지만 악성비루스의 검사와 진단, 과학적인 치료전술을 제때에 정확히 확립실행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능히 막을수 있는 인명피해까지 내고 내부에서의 전염병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미신적인 랑설까지 나돌아 방역과 치료사업에 적지 않은 혼란을 조성하였습니다.

방역의 모든 고리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근원을 따지고 결과를 예측, 예단하면서 능동적으로 융통성있게 대책하지 못하고 물리적봉쇄일변도에만 매달려 기계적으로 사업하다보니 인민들의 생활상불편과 경제사업의 부진을 가중시키고 앞질러가며 할수 있는 일도 뒤따라가면서 수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보건, 방역의 실태, 깊이 말하면 우리의 보건, 방역하부구조와 기술력, 물질적준비상태가 건국이래 우리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해온 보건, 방역정책에 상응하게 발전하지도 못하였고 불의의 사변앞에 민활하게 대응할수 있게 준비되여있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다 체험했듯이 일단 유열자가 도처에서 발생할 때 방역부문, 보건부문의 필수대응능력이 얼마나 긴요하고 절실한가를 뼈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결국 방역능력이자 국가의 안전보장능력이며 인민의 생명수호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국가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항상 중시하고 예측해야 할 객관적인 위기는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전쟁위기, 전염병위기, 자연재해, 이것이 국가존립과 발전,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책임적으로 대처해야 할 3대위기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오래전부터 강력히 선차적힘을 넣고있으며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원력, 잠재력도 각성있게 갖추어나가고있습니다.

제일 문제로 되는것은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능력건설입니다.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는 국가방역능력건설을 우리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방역능력건설과 관련한 주요정책적과업들이 이미 다 책정되고 시달되였으므로 큰 선에서만 몇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였다고 하여 전염병전파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국가비상방역사업이 다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중보도수단을 통하여 매일 소개되는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과 우리 나라 주변의 전염병위기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며 안심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에는 너무도 때가 이릅니다.

우리 경내에 들어왔던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보다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더 강하면서도 중증도와 치명률이 크게 변하지 않은 10여종의 아형들이 세계각지에 련이어 출현하여 이로 인한 감염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있는 판국입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높은 원숭이천연두비루스가 수십개 나라로 확산되면서 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가지 전염병발생가능성도 인류를 불안케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기의 성과에 도취되여 자만하거나 해이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이 계속 강화되여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성과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장벽을 철통같이 견지하고 방역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인민적인 방역의식과 각성을 견지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방역전의 주인이 광범한 대중이고 방역전의 승패도 사람들의 자각성에 의하여 결정되는것만큼 이미 확립되여있는 전사회적인 방역분위기가 절대로 약화되거나 저조해지지 않게 방역선전과 교양을 각방으로 강화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승리한 오늘에 더 위대할 래일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승리라는 이 말을 아껴야 하며 보다는 각성과 실천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불피코 해이와 방심, 무경각이 살아날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

들, 행정경제부문, 법기관들은 전부 각성하여 대중적인 방역의식과 위기의식을 견지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도높은 방역선전과 해설사업도 판에 박은 소리를 반복하면 오히려 권태감과 만성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방역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자료들과 우리 방역실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실지 대중속에 방역의식을 공고히 하고 방역준수기풍을 심화시킬수 있는 선전전, 사상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방역지침과 규률을 어기는 현상과의 조직적, 행정적, 법적투쟁을 따라세워 우리의 방역투쟁이 대중의 자각성에 강력한 법적담보가 안받침된 확실하고 믿음성있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철통같이 구축된 방역장벽을 유지공고화하는데 계속 주력하여 그 어떤 악성비루스도 다시는 침습할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국경과 전연, 해안과 해상, 공중에 대한 다중적인 봉쇄장벽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대류행병의 변동특성에 따라 보강할것은 보강하고 새로 차단할것은 차단하면서 봉쇄의 완벽성을 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봉쇄차단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성원들에 대한 사상동원, 고무격려와 함께 근무조건 및 생활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어 우리의 방역전초선이 사상정신적으로나 작전전술적으로, 방역학적으로 완벽할뿐 아니라 책임성과 경각성에 있어서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가의 방역능력건설에 박차를 가하는것이 우리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국제적우려를 자아내는 공중보건비상사태도 심각하지만 이에 못지 않는 도전적인 보건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보건악몽이 재현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며 안심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방역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지금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하여 방역능력건설을 소홀히 하거나 늦추는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며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당의 정치리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요구로 보아도 그렇고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제도의 본성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한 이번 보건위기가 새겨준 뼈저린 교훈을 놓고보아도 방역능력건설을 강행추진하여 반드시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실시한 방역정책과 지침들, 축적된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체계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방역을 보다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완벽하게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심화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방역체계와 질서를 보다 완비하며 방역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충분히 갖추기 위한 사업들을 예견성있게, 현실성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힘을 넣어야 할 과제는 전문방역일군들을 양성하고 수준을 높여주는 사업, 과학적인 검사측정설비들을 개발장비하는 사업, 전문격리치료시설들을 나라의 곳곳에 꾸리는 사업을 늦추지 말고 계획성있게 밀고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제시한대로 각지의 제약공장들과 고려약공장들,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의료용소모품공장, 방역의료품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전국의 병원들을 현대화하고 약국들을 표준대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단계별로 실속있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인민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제도, 방역제도의 실질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건강장수하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방역부문, 보건부문앞에 나선 중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접적담당자인 당의 붉은 방역전사, 보건전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인민들은 최대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목격하면서 의료일군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으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제도의 수호자, 인민의 생명을 돌보는 믿음직한 보호자로 간주하게 되였습니다.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의 이 믿음, 이 평가를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제일 소중한 재부로 간직해야 하며 이에 계속 보답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이 준 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체질화하고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방역실천, 보건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에 심신을 깡그리 바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시련속에서 또 한번 강해졌으며 이제 더 많은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과감히 이겨내고 더더욱 강해질것입니다.

바로 석달전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전파되였다는 사실이 공표되였을 때 오늘같은 날이 이토록 빨리 오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에 대한 진함없는 충심,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웃으며 헤쳐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오직 우리 당만을 바라보며 굳세게 떨쳐일어난 고마운 인민과 그 인민의 일심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번 보건위기도 절망과 좌절의 고비가 아니라 발전도약의 기회로 삼고 더 큰 승리를 내다보며 전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우리 인민의 믿음과 고무격려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으며 이런 훌륭한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대고 분투하고 또 분투해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뚜렷이 과시된 우리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비상방역전선에서만이 아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사상최악의 위기를 과감히 이겨낸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더욱 발동하고 승화시킨다면 올해 우리가 내세운 투쟁목표는 물론이고 당 제8차대회가 밝힌 5개년계획의 목표도 성공적으로 점령될것입니다.

모두다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갑시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고저 합니다.

부디 모두의 귀체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　　*　　*

수도의 방역위기를 평정한 인민군군의부문 전투원들을 축하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앞에서 하신 연설

주체111(2022)년 8월 18일

수도의 방역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운 영용한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

오늘 우리는 여기에 그 무슨 총화사업을 하거나 특별한 과업을 제시하는 회의로서 모여앉은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한 동무들을 내가 직접 만나보고 표창도 크게 하고 기념으로 함께 사진도 찍어주고싶어서입니다.

방역위기가 지나가고 어느덧 동무들이 수도의 거리들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고 며칠째 왜서인지 계속 허전하기만 하고 동무들생각이 계속 들었고 무엇인가 못해준것에 마음속 아쉬움을 덜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수천명의 전투원들이 시민들에게 페를 끼치지 않자고 공식적인 환송의식도 없이 깊은 밤, 이른새벽에 조용히 떠났다는 보고를 받고보니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도리에 충실하려는 동무들생각이 더 났고 무엇인가 해주고싶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동무들이 누구를 위해 싸웠는가,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전투임무를 마치고 남몰래 떠나는 동무들을 바래우며 인민들의 눈가에 맺혔던 뜨거운 눈물이 다 말해주었습니다.

인민이 마음으로 내린 이 평가는 억만금을 주고서도 얻을수 없는 가장 고귀한 평가이며 혁명군대 군인들로서 받아안을수 있는 가장 값높은 표창입니다.

나는 동무들의 귀대소식을 뒤늦게야 알고 서운한 마음을 누르지 못했다는 수도시민들의 마음까지 합쳐 동무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 격려도 해주고 동무들의 수고와 위훈을 온 나라가 다 알게 다시한번 크게 평가해주자고 오늘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을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

내가 응당 이미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동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인민을 지켜야 하는것이 동무들의 본연의 임무이겠지만 동무들건강, 동무들의 안녕 또한 나에게는 하나도 잃을수 없는 피와 살점과 같기에 방역투쟁 전기간 악성비루스와 직접 조우해야 하는 동무들걱정 또한 컸습니다.

그런데 수도방역전장을 지켜섰던 모든 동무들의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에 넘친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방역전에서 승리한 동무들에게 축하의 인사보다 앞서 모두가 그 위기를 디디고 이렇게 건강해준것이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동무들! 이번에 정말 잘 싸웠습니다.

당과 조국, 인민의 이름으로 동무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의 방역위기를 평정한 인민군군의부문 전투원들을 축하한다

지난번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투쟁성과를 평가했듯이 정말 이번에 동무들이 91일간 수도보위, 인민보위전에서 굴함없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헌신하며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동무들이 투쟁한 수도권지역은 국가방역투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중심전투지역이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그 다급했던 시각 동무들을 수도방역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명령서에 수표하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동무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이 자리에 서니 나라에 들이닥친 돌발적인 전염병확산으로 국가최대방역위기사태가 발령되고 그로하여 수도는 물론 온 나라가 마치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기라도 한듯 숨죽은듯이 조용했던 지난 5월 14일과 15일의 그밤 사람 한명 찾아볼수 없는 텅 빈 거리들을 돌아보며 무너져내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던 순간도 생생히 떠오르고 처음 맞다든 보건사태로 약국들에 의약품이 수요대로 공급되지 않아 줄을 서고 붐비는 주민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할수밖에 없었던 속타들던 순간들, 그리고 매일같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전염병전파상황을 보고받던 순간들도 떠오르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 우리 군대에 운명처럼 마음과 믿음을 통채로 맡기고싶던 그 나날들에 내가 느꼈던 그 심정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라앞에 닥친 위기에 대처하여 국가방역체계가 최대위기대응체계로 이행한 4일만인 5월 15일 우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나라에 조성된 보건사태를 분석하고 악성전염병의 전파형세에 견결히 항거하여 전면적이고 중대한 결심들을 채택하였으며 그 중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바로 동무들, 인민군군의부문 전투원들을 수도사수전에 불렀습니다.

동무들은 이번 보건사태를 평정하는 전 전투행정에 간고한 노력으로써 우리 당이 기대한 이상으로 우리 군대의 견인불발의 정신과 백전백승의 전투력, 당군의 고상한 풍모와 아름다운 절개를 넘치도록 보여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민군대가 이번에 진행한 수도보위전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나무랄데 없는 만점짜리 작전이였습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인민군대 군의부문이 제일선에 진입한것 자체가 전국의 비상방역분위기에 신심을 주고 열병전파에 우려하던 인민들에게 용기를 주는데서나 방역전황을 역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사실 인민군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아니였다면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이 더 간고해지고 힘들어질번하였습니다.

국가의 위기관리에서 중추가 되고 최후보루가 되여야 할 수도가 오히려 방역형세가 제일 위험하였던 시기 수도당조직은 물론 국가기관들도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중앙이 믿을것은 인민군대 군의부문뿐이였습니다.

동무들은 자신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으로써 비상방역전의 요진통으로 되고있던 수도의 약품보장사업에 군의부문의 정예력량을 전격진입시킨 당중앙의 결심이 옳았고 당중앙의 믿음과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하였습니다.

누구라 할것없이 처음 맞다든 위기였기에 불안감도 컸던 그 시각 동무들이 보여준 용감성과 희생성은 자기 사령관의 마음속진정을 제일 잘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길에서 주저함을 모르는 우리 군인들의 남다른 충심에서 분출된 정신적특질이였습니다.

사회의 각계각층, 남녀로소를 대상으로 약품을 신속히 보장해주고 치료정형까지 관심해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처음이였지만 모든 전투원들이 당중앙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약국에서 일하는 전문의료일군들도 생각지 못했던 구체성과 세심성, 정성을 기울이면서 훌륭한 소행들을 발휘하였습니다.

동무들은 결코 군복입은 의료일군만이 아니였습니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 인민의 아들, 친형제, 이것이 91일간의 성스러운 전투행정에 평양시민들의 뇌리에 찍혀진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참모습이였습니다.

수도의 약국들에 파견된 동무들이 받은 명령은 약품수송과 공급을 안정시키는것이였지만 모든 전투원들이 인민들의 생명수호와 건강보호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라 할것없이 련일 계속되는 철야근무로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및 심리적피로가 극도에 달한 속에서도 약품이 필요한 세대들을 찾아 폭염속에 뛰여다니고 장악한 유열자들이 깨끗이 병을 털어버릴 때까지 찾고 또 찾으며 정성을 다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였습니다.

전염병치료약뿐 아니라 건강회복에 좋은 보약을 구해가지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공로자들의 가정을 찾은 소행, 사경에 처한 환자소생을 위해 자기의 피를 수혈하고 자기 입으로 막힌 숨길을 열어준 소행, 공급된 전투식량을 서슴없이 덜어내고 부모들이 보내준 현금을 아낌없이 털어 어려운 세대들에 주부식물을 나누어준 소행을 비롯하여 어느것 하나 인민을 감동시키지 않은것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것은 인민들과 접촉함에, 인민들을 대함에 항상 뜨겁게 흘러넘친 우리 군대의 진정이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가 앓을 때 약이나 식품을 가져다주어서만 인민군대를 아들이나 형제로 여긴것이 아닙니다.

한집안식구보다 더 다심하고 정성스럽게 걱정해주고 진심을 다해 보살펴주며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 군인들의 효도를 온몸으로 느끼였기에 스스럼없이 고마운 우리 군대, 우리 아들, 우리 손자라는 부름이 흘러나오는것입니다.

우리 군의부문 전투원들중에는 가정의 불상사와 위태로운 부모처자들의 소식을 듣고도 아픔과 고충을 신성한 사명감으로 참아 이겨내면서 수도시민들에게 정을 쏟아부은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신병으로 고생하면서도 헌신의 길을 멈춤없이 걷다가 희생된 지휘관, 대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명령만으로는 도저히 실행할수도 없고 바랄수도 없는 미거로서 오직 우리 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로써만 이루어낼수 있고 설명될수 있는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잘했다고 볼수 있는 몇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도당조직들을 통하여 여러번 제기되였는데 인민들속에서 인민군대가 너무하다는 신소아닌 신소가 그칠새 없었습니다.

인민들이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다른 행동에 대하여서는 다 뜨겁게 고마워하면서도 자기들의 소박한 성의를 좀체 받으려 하지 않고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하고 서운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정황속에서도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끼쳐서는 안된다는 우리 인민군대고유의 정신도덕적기강을 이번 수도비상방역전에서도 고수한것이 응당하며 대단히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무들은 지난 기간 나라앞에 죄를 지은것으로 하여 약국을 찾기 주저하는 주민세대들에도 약품을 전해주면서 우리 제도의 혜택이 빠짐없이 가닿게 하였다는데 정말로 잘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당의 의도와 정책을 잘 알고 정치적으로 옳게 사고하고 행동할줄 아는 이런 훌륭한 기풍, 정치사상강군의 진면모를 재확인하게 된것을 우리 당은 그 무엇보다 제일로 기쁘게,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의약품공급단위들에 대한 약품수송을 맡은 전투원들도 낮과 밤이 따로없이 수도의 거리와 마을들을 누비며 필수약품들을 기동적으로 보장하면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였습니다.

이런 우리 인민군대의 고결하고 헌신적인 정신적풍모가 수도시민들을 전염병공포의 위기속에서 일으켜세운 불사의 힘이 되였고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을 전사회적으로 더욱 승화, 분출시킨 기폭제로 되였다고 봅니다.

나는 이번 비상방역전에서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스스로 발휘한 소행과 투쟁성과들을 보고받을 때마다 이같이 훌륭한 동무들을 군대에 내보낸 부모님들과 형제들은 얼마나 대견스러워하고 또 안해와 자식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는가 하는것이 생각되면서 더 내세워주고싶고 평가해주고싶었습니다.

비록 목숨을 겨냥한 총탄은 날아다니지 않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비루스를 박멸하는 투쟁에 서슴없이 나서서 인민들을 수호한 동무들 모두는 오늘의 화선군의, 전투영웅들입니다.

동무들의 결사적인 투쟁으로 하여 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선을 헤치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면모가 남김없이 과시되였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고귀한 혁명적재부가 굳건히 보위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대가 적들과의 군사적충돌만이 아닌 시시각각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비군사적인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 승리할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접수한 장령으로부터 군관,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투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최대로 발휘하여 영용하게 싸움으로써 방역대승을 앞당기는데 혁혁하게 공헌한데 대하여 당총비서로서, 공화국무력의 총사령관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간주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

동무들자신이 이번에 절실히 느끼였겠지만 인민군대에 대한 당과 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크며 군의부문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는것은 평시에나 전시에나 필수적인 요구로 나섭니다.

특히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현대적발전과 싸움준비완성이 전쟁수행에서 가지는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치렬한 전쟁상황에서 자기의 력량을 계속 보존해야 목적한 군사전략적임무를 수행할수 있다는 견지에서 볼 때 군의부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민군군의부문은 앞으로 전쟁수행의 인적잠재력을 보장하는데서 맡고있는 본연의 사명에 맞게 당의 군사의학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나라의 보건방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비상방역전에서 발휘된 높은 충성심과 애민정신, 고상한 인간성에 발전된 의학과학기술이 결합될 때 그 어떤 치료전투도, 공공보건위기도 능숙히 감당할수 있습니다.

인민군군의부문의 원종장인 림춘추군의대학은 마땅히 군의력량육성과 군진의학발전에서 선도적, 핵심적역할을 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전반을 일신시키는데서도 기치를 들고 온 나라의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교직원, 학생들의 의학과학리론수준과 림상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현대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수단을 부단히 혁신하여 모든 졸업생들을 전시군의보장을 자립적으로 원만히 할수 있는 유능한 야전군의, 야전명의로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전쟁환경과 세계군진의학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식의 야전치료방법을 더욱 연구완성하고 의료설비와 기재들을 현대화하는데도 힘을 넣어 군의부문 싸움준비완성에 적극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좋은 경험은 장려, 확대하고 부족한 점들은 퇴치, 보강하면서 당사업과 교무행정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총정치국과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발휘한 훌륭한 투쟁기풍으로 전군을 교양하고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인민을 위한 우리 군대의 헌신적투쟁행로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것은 인민군군의부문 전투원들의 영광이며 남다른 영예입니다.

지난 91일간 동무들이 전투기록장에 새겨온 충성과 애국, 사랑과 헌신의 자욱자욱은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길이 남아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한생을 영원히 드팀없이 이끌어줄것입니다.

동무들은 당중앙의 신임과 기대를 항상 명심하고 앞으로도 이처럼 훌륭한 자욱을 계속 새겨나갈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동무들!

인민의 군대, 이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부름앞에 언제나 떳떳하기 위해 당에 충실하고 인민에게 헌신하는 우리 혁명군대 조선인민군의 전투적로정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라도 견결히 싸워 우리 국가와 제도,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무조건 지켜낼데 대해 내린 당의 중대명령을 받아안고 간고한 노력으로써 악성비루스를 격퇴하고 방역의 불퇴의 선을 끝끝내 사수함으로써 영예의 승리자들이 된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과 우리 당과 국가력사에 깊이 기록될 뜻깊은 승리의 기념촬영을 하자고 합니다.

동무들과 같은 충직한 장병들과 함께 혁명하는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동무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충실히 복무해나아갑시다!

*　　*　　*

조선특유의 불가항력

지난 8월 10일 조국에서는 경내에 류입되였던 악성비루스를 박멸하고 완전히 방역안정을 되찾은데 대하여 선포하였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현실을 두고 《세기적인 수수께끼》, 《전설같은 현실》이라고 평하였다. 이 평은 그대로 조국에서 방역위기를 승리적으로 타개한 힘에 대한 놀라움의 표시이기도 하다.

하다면 그 힘은 어떤것인가.

그것은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이다.

조국의 일심단결은 당과 인민의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 단합이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관점과 립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활동원칙이다.

력사상 처음으로 맞다든 횡포한 악성전염병전파사태앞에서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본연의 자세와 립장에 충실하였다.

악성전염병이 경내에 류입된 즉시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는것과 함께 전염병발생상황관리와 전파근원차단, 인민생활안정을 비롯하여 매우 적시적이고 위기를 타개할수 있는 최선의 방략을 강구하였다.

국가예비약품을 해제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중대조치가 취해지고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으로 인민군대의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수도의 약국들에 급파되였다.

닥쳐온 국난은 사상최대의 위기였지만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책을 실생활로 체험하면서 자기 운명에 대한 믿음과 래일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으며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갔다.

사실 최대비상방역체계의 가동과 함께 취해진 전국적인 격페조치들은 국가사업뿐 아니라 매 가정, 매 공민들의 생활공간에도 몇갑절 큰 난관과 애로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그 난관을 웃으며 이겨나갔다.

비상방역과 관련하여 시달되는 모든 규정과 지시를 당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자각적으로, 량심적으로 준수하고 무조건 실행해나갔다.

어려움속에서 자기 신상보다도 조국의 어려움을 더 걱정하게 했고 보폭을 함께 하며 난관을 함께 이겨내는것을 자기 가정과 자신을 위한 응당한 의무, 본분으로 간주하며 특유의 강인성을 발휘해나갔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정신과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위해주는 덕과 정이 온 사회에 넘쳐흘렀다.

이 나날 가슴뜨거운 미담들이 수없이 태여났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인민의 건강을 지켜 최선을 다해온 군의부문 전투원들과 의료일군들, 약품보장을 위해 철야전투를 벌린 공장종업원들과 일군들, 가산을 아낌없이 덜어내여 마련한 물자들을 합숙과 대학기숙사, 육아원, 애육원에 보내준 사람들, 방조가 필요한 세대, 곤난한 이웃들에게 사심없이 식량과 부식물, 필수품을 보내준 주민들을 비롯하여 미담들은 중앙과 지방, 공장과 농어촌 그 어디에나 다 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심에 있어서나 나라사정에 대한 리해심에 있어서 그리고 공민적의무에 대한 성실성과 곤난을 이겨내는 인내력에 있어서 우리 인민만큼 훌륭한 인민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방역정책과 이를 집행함에 일치하게 호응해나선 전민의 합세는 류례없는 방역위기를 용이하게 타개하고 대승을 가져오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결된 조국의 일심단결!

조선특유의 이 불가항력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하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경

국가존립과 발전, 인민의 안녕을 위해

지난 8월 조국에서는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4월말부터 원인을 알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확대되여 짧은 기간에 유열자들이 급증하고 해당 단위들에서 분석한 결과 그것이 악성전염병이라는 사실이 공표되였을 때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대류행전염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2년 수개월간이나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기적을 창조하였지만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미약한 조국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나가겠는가 하는 의문으로 세계의 초점은 사회주의조선에 모아졌다.

그러나 조국은 세계를 또 한번 놀래웠다.

돌발적인 방역위기상황이 조성된 때로부터 100여일간 또다시 기적을 창조하였던것이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하여 불과 5일째부터 전국적인 전염병확산세를 억제, 관리가능한 안정적인 국면에로 돌려세우고 비상방역전의 승세를 확고히 틀어쥐였다. 또한 치명률도 0.0016%로서 전염병위기대응관리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대비할수 없이 낮은 기록을 세웠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지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방역안정을 되찾았다.

돌이켜보면 조국이 이룩한 이 성과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에 당황하여 누구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을 때 국가존립과 발전,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지 하루만인 이른 새벽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여 나라가 직면한 최악의 위기를 극복할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하루가 다 저물어가던 깊은 밤에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찾으시여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귀중한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려 련일 중요회의들을 소집하시고 하나에서부터 열, 백, 천, 만가지에 이르는 대책과 방도들을 직접 내놓으시며 불철주야 방역전장들을 찾고찾으시였다. 깊은 밤 수도의 약국들을 찾으시여 의약품공급정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기도 하시였고 손수 가정에서 마련한 상비약품들을 제일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본부당위원회에 바치기도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결사수호하기 위하여 지난 91일간의 나날 그이께서 지도해주신 령도문건만 해도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나 되였다.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도록 하시고 지역별차단봉쇄와 단위별격페조치를 실시하며 악성비루스의 전파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돌발적인 방역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과업, 방도적문제들을 밝혀주신 그이이시다.

전략예비의약품을 긴급해제하여 전진공급하도록 중대조치를 취해주시고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으로 인민군대의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수도의 약국들에 급파해주시였으며 악성비루스의 특성과 치료경험, 방법과 관련한 자료들을 신문과 TV, 방송으로도 널리 소개선전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여 누구나 신심을 가지고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아파하는 인민의 목소리도 제일먼저 들으시고 불같은 호소로 당과 정부를 불러일으키시며 위험천만한 방역전장에 나서시여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하시였다.

바로 그이의 고뇌와 헌신의 로고로 이어진 그 나날들이 하나하나의 층계로 고여져 조국은 방역대승의 높은 단상에 올라설수 있었다.

닥쳐온 국난은 사상최대의 위기였지만 인민은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온넋으로 새기며 그이품에 더 깊이 안겨들었다.

그 시련속에서 조국인민은 더 강해졌고 래일에 대한 신념도 더 굳세여졌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며 그이의 령도따라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해 더 힘차게,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엄향심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국에서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이 나날 조국에서는 수많은 기적적사변들이 일어나고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일떠섰으며 조국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과연 무슨 힘으로 지속되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는가.

그것은 언제나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여온 자력갱생을 위력한 수단으로 내세우시고 그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불변의 신념-자력갱생

조국의 지난 10년간은 결코 순탄하게 흐르지 않았다.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살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뜻밖에 잃은 민족의 대국상을 기화로 사회주의조선의 전진을 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 자연재해를 비롯한 겹쌓이는 시련들…

그러한 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하며 그 길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진행된 당대회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중요회의들과 신년사들에서 그이께서 거듭 강조하신것도 자력갱생이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3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것으로서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하자는것을 제기한다고 하시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해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여기에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려정에서 인민의 힘을 더욱 굳게 믿고 오직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미래를 개척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결심이 어리여있었다.

그이께서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강령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실 때마다 인민은 자력갱생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의 필승의 보검이라는 진리를 더더욱 가슴깊이 새기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 전면적발전을 위한 위력한 수단을 안겨주신 그이께서는 인민이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도록 령도하시였다.

그이의 령도에 의해 솟아나 변혁의 시대를 자랑하며 조국인민에게 커다란 긍지와 삶의 희열을 안겨준 창조물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지나온 10년의 려정우에 솟아오른 수많은 건축물들과 창조의 재부들, 이제 또다시 솟아오르게 될 그 모든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주의 신념,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념비이다.

기적을 떠올린 밑뿌리

령도자의 믿음과 사랑에 따르는 인민의 보답과 의리.

조국은 이 혼연일체로 자력갱생의 년륜을 새기여왔고 지금도 이 불변의 진리로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시고 자력갱생의 위력을 더욱 분출시키시였다.

지난 10년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많은 단위들을 찾으시였다. 가시여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것이라면 높이 평가해주신 그이이시다.

그이께서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발휘되고있는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으시여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리라고 믿는다고 하시였다.

몇해전 12월 어느날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언제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하여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원산군민발전소를 도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겠다고 달라붙은것자체가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그대로 구현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강원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시였다.

지난해 11월 삼지연시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삼지연시건설투쟁속에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불가항력적위력과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자력번영, 자력부강해나가려는 우리 국가의 철석같은 의지와 자신심, 자립적발전가능성이 실증되였다고 하시였다.

조국땅에서 창조되는 모든 기적과 변혁에는 인민모두가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그이의 손길이 어려있다.

무더위와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심어주신 그이, 그이의 믿음과 기대에 결사관철로 화답해나선 조국인민이다.

바로 이 혼연일체의 힘은 자력갱생의 기적을 떠올린 밑뿌리였고 근본원천이였다.

그이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일념 안고 떨쳐나선 인민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뚫고헤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하였다.

아직 어렵고 부족한것이 적지 않지만 인민은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장성단계에로 이행시키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과감히 벌리며 힘차게 전진하였다.

수많은 단위들이 자체의 생산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모가 나게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이 반기는 제품들을 하나라도 더 내놓기 위해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로 창조물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였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그대로 조국땅의 벅찬 숨결이 되고 맥박이 되여 자립, 자력의 불길로 타올랐다.

그 불길과 더불어 주체철, 주체비료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조국땅우에서는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인 새형의 자동차와 뜨락또르, 궤도전차와 지하전동차들이 달리고있으며 하늘에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의 산물인 경비행기들이 날았다. 나라의 곳곳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일떠서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더욱 나래친 10년, 그것은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 일편단심 그이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의 참된 충성과 보답의 자욱으로 이어진 혼연일체의 10년이다.

전대미문의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아로새긴 10년은 인민의 영원한 정신적재부이고 새로운 승리에로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본사기자

오늘도 나래치는 천리마정신

조국인민의 생활의 신조로, 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계승되고있는 천리마정신은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강선제강소(당시)의 로동계급은 주체45(1956)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강선은 천리마대진군운동의 첫 봉화를 추켜든 력사의 고장으로 되였다.

오늘 조국의 그 어느 공장, 기업소, 그 어느 일터마다에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나붙어있다.

이 구호는 지난 세기 50년대 중엽에 대중적혁신운동으로 벌어진 천리마운동의 나날 조국인민이 높이 들었던 구호이다.

천리마정신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의 시대에도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해가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기적의 나래를 달아주고있다.

특히 주체화대상공사들을 진행하고있는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 천리마시대의 그 정신, 그 기상이 더욱 나래치고있다.

천리마정신은 지난 세기 50년대중엽 1t의 강재마저 그리웠던 그때 강선제강소(당시)의 로동계급이 제일먼저 창조하였다.

당시 전쟁을 겪고난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짧은 기간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전기기관차, 대형굴착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 28일 이른아침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시여 로동계급에게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터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지난날 어렵게 살아왔고 지금도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 남이 한발자국을 걸으면 열발자국을 걷고 남이 열발자국을 뛰면 백발자국을 뛰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계획보다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다음해에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뽑아냈다.

이곳에서 타오른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은 삽시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로 거세차게 타번져졌다.

김책제철소(당시)에서는 19만t능력의 설비로 27만t의 선철을 생산하였고 황해제철소(당시)의 로동계급은 외국의 기술원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대주의자들의 잡소리를 짓눌러버리며 한해도 안되는 사이에 대형용광로를 일떠세웠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갔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자들은 30여일만에 뜨락또르를, 40일만에 자동차를, 1년동안에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고 3 000t프레스와 대형양수기, 굴착기, 불도젤 등을 제작하였으며 수도건설자들은 살림집을 14분에 한세대씩 조립하는 놀라운 속도를 창조하였다.

나라의 도처에서 이전의 기준량이 낡은것으로 되고 증산과 절약의 예비가 나왔으며 화학, 건설부문들에서 천리마시대를 대표하는 비날론속도, 평양속도가 련이어 창조되였다.

이 천리마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오늘도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천리마시대 인간들이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방법을 기술적으로 보다 더 완성해나가고있다. 그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원료와 연료, 자재보장을 따라세워 철과 압연강재를 계획대로 생산하면서도 새로운 에네르기절약형의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을 완성하는 등 올해 목표를 강력히 추진해나가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쥘 때 주체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건설과 산소생산능력확장공사를 다갈이 밀고나가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련속조괴기증설을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속에서도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력량을 집중하여 전격적으로 내밀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강철직장 직장장 김경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천리마시대의 강철생산자들은 언제나 철강재생산 하나만을 생각하며 제 집 밥가마가 끓는것보다 용광로에서 쇠물이 끓는것을 더 흐뭇하게 여기였다. 그들이 발휘하였던 그 정신으로 일한다면 아마 뚫지 못할 난관이 없을것이다.》

금속공업부문의 철강재생산자들은 이것이 없소, 저것이 걸렸소 하며 우는소리나 하는 낡은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털어버리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러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흥

1950년대의 천리마정신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오늘도 이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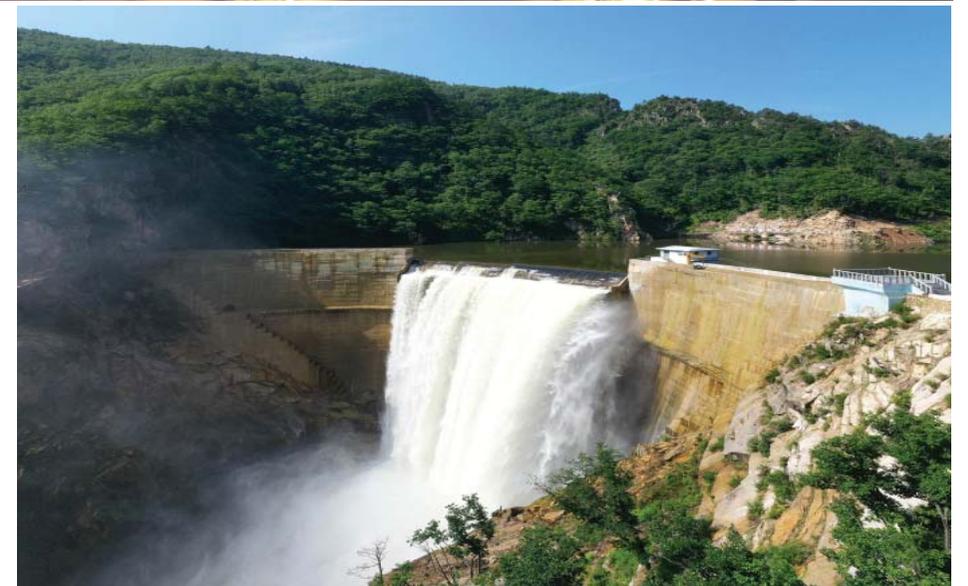
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비날론공장을 건설하여 비날론속도를 창조하였던 천리마시대 인간들처럼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를 갖추기 위한 대상공사를 순간의 멈춤과 사소한 편향도 없이 완강하게 추진해나가고있다.

화학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책임감과 분발심으로 비료생산능력을 계속 높여나가면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철저히 담보해나가고있다.

이렇듯 조국인민의 생활의 신조로, 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계승되고있는 천리마정신은 오늘 금속, 화학공업뿐 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송대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마지막모습

(전호에서 계속)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여 오월단오가 되였는데 그때 우리는 어머니보고 산소에 같이 가자고 졸랐다.

어머니는 나야 거기 가서 뭘 하겠니. 너희들끼리나 가라고 하면서 끝내 산소에 가지 않았다. 그대신 우리에게 제물을 꾸려주고는 향불은 어떻게 피우고 술은 어떻게 부으며 절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을 차근차근 대주었다.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산소에 가지 않은것은 자식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묘지에 혼자서 가군 하였다. 그 관례를 깨뜨린것은 단 한번, 리관린이 장례에 참가하지 못하고 뒤늦게 무송에 나타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을 때뿐이였다. 그때 어머니는 리관린을 묘지에까지 안내하였는데 그가 너무 슬프게 조상을 하던 나머지 기절할 지경이 되였기때문에 오히려 울지 말라고 달래기까지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이처럼 인정에 무른분이였지만 눈물이 없었다. 녀성으로서는 실로 드물다고 할만치 강의한 성품을 지니고있었다. 어린시절에 목격한 어머니의 놀라운 천품이 나의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아있다.

이런 어머니였기때문에 그처럼 쓸쓸한 병상의 고독속에서도 서슴없이 아들이 갈길을 재촉할수 있었고 아들에게 매를 대는 심정으로 온몸과 넋이 짜릿짜릿하게 한생의 좌우명으로 되는 심각한 훈계의 말씀을 해줄수 있었던것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보통어머니가 아니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늘 마동희의 어머니 장길부녀사를 보통어머니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어머니가 해방후 나를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울지 않았다. 다른 녀자들은 만나서 다 울었지만 그 어머니만은 울지 않았다. 내가 아들의 전우들이 많은 평양에서 살라고 했더니 장길부어머니는 아들을 고발한 원쑤들을 찾아내야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고향으로 내려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다. 찌그러진 싸리바자 앞에서 찬공기를 쐬며 거닐고있는데 철주가 조용히 문을 열고 토방에 나섰다.

우리는 둘이서 나무단을 깔고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주는 지금까지 공청사업에만 열중하다보니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형이 집걱정을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겠노라고 하였다. 사실은 내자신도 그런 부탁을 하고싶었는데 동생이 먼저 말을 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우리는 콩비지를 맛있게 해먹었다. 나는 밥상을 물리고나서 뒤집에 있는 김정룡이를 만나러 찾아갔다. 동생들의 운명문제를 의논하고싶어서였다.

내가 남만으로 당장 떠나가야겠는데 집일이 걱정되여 토기점골에서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실토했더니 김정룡은 집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떠나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동생들도 돌보고 어머니의 병구완도 잘할테니 념려말라고 하였다.

나는 집에 나와 길떠날 차비를 하였다.

내가 신발끈을 매고있을 때 어머니는 고리짝밑에서 5원짜리 지전 넉장을 꺼내여 나에게 주었다.

《객지생활을 하느라면 돈을 써야 할 때가 많겠는데 이걸 건사해라. 남자의 주머니에는 정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 청나라말기에 손중산선생이 외국대사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소제부한테 돈을 몇잎 쥐여주고 빠진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더냐.》

정작 돈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집어넣지 못하고 어떻게 할바를 몰라 망설이였다. 그 돈 20원에 얼마나 큰 어머니의 로고가 깃들어있는가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손가락끝이 모지라지도록 삯빨래도 하고 삯바느질도 해서 푼푼이 저축해둔 20원의 돈, 소 한짝에 한 50원정도씩 할 때였으니 그만한 돈이면 중소 한마리는 살수도 있었고 쌀을 사서 세 식구가 일년은 살아갈수도 있었다.

나는 마치 그 돈의 무게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기나 한것처럼 비척거리면서 토방밑에 내려선 다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여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 순간에 내가 명심한것은 나의 인사가 다른 때와 류다른 점이 있어서 어머니를 울리게 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될수록 표가 나지 않게 보통때와 다름없이 범상하게 인사를 하였다.

《어서 떠나거라. 아무래도 갈길인데.》

어머니는 병색이 짙은 얼굴에 미소를 애써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내가 걸음을 내디디였을 때 뒤에서 방문 닫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나의 걸음은 동구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둘레를 돌기 시작하였다. 손에는 돈 20원이 그대로 쥐여져있었다. 한바퀴를 돌고 두바퀴를 돌고 세바퀴를 돌고…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내 머리에는 온밤 내 마음을 휘여잡고 놓아주지 않던 복잡한 상념의 쪼각들이 구름처럼 피여올랐다. 내가 이 마당에 다시 들어서게 되는 날은 언제쯤 될가? 과연 내가 지금 승산이 내다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내가 가는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있을것인가? 그사이 어머니의 병이 호전될 가망은 있을가?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집둘레를 속절없이 돌고있을 때 어머니가 문을 열어제끼며 준렬하게 나를 꾸짖는것이였다.

《상기두 무엇이 걱정돼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구 우물쭈물하느냐? 나라를 찾겠다구 결심품구 나선 사람이 그렇게도 마음이 여리고 집걱정이 많아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르겠니. 너는 집안일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 계시는 삼촌을 생각하구 외삼촌을 생각해야 한다.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구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 왜놈들이 나라를 강탈한지도 벌써 스물두해가 되여오는데 너두 조선의 사내라면 맘을 크게 먹구 걸음을 크게 떼야 할게 아니냐. 네가 장차로도 이 에미걱정때문에 집으로 찾아올 생각이라면 아예 이 문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아들은 만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내 가슴을 세차게 울리였다.

어머니는 그 몇마디의 말씀에 기력을 다 소모해버린것처럼 문설주에 머리를 기대고 정과 열과 노여움이 엇바뀌는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계시였다. 어쩌면 천리를 걸어 팔도구에 도착한 날 밤 하루도 재우지 않고 그달음으로 림강에 가라고 떠밀어보내던 때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같기도 하였다.

나는 아들로서 그처럼 의에 불타고 열로 빛나는 강직하고 숭고한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어머니는 온몸에 불붙는 그 의와 열로 하여 순식간에 재가 될것 같은 형상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개와 넋은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

할 그런 경지에서 나를 굽어보고있었다.

그때의 모습은 차라리 어머니라기보다도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였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를 모시고있다는 자랑으로 하여 나는 가슴이 터져나갈것만 같은 행복감을 느끼였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길숙이 숙이였다. 그런 다음 동구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아래목에 놓인 나무다리를 건느고나서 고개를 돌리니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문설주를 짚고 나를 지켜보고계시였다. 그것이 내 눈에 비쳐든 어머니의 마지막모습이였다. 저 섬약한 육체의 어느 구석에 이 아들의 가슴을 그렇게도 드세게 흔들어준 고결하고 강의한 넋이 깃들어있을가.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의 몸이 병마로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이 아들은 지금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있겠는가.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십수백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범상한 작별이 아니라 내 한생에 가슴아픈 추억을 남겨놓은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별이였다. 나는 그후로 어머니를 다시 만나뵙지 못했다.

몇달이 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였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머리에 맨 처음으로 떠오른것은 마지막작별의 순간에 더 따뜻한 말을 해드리지 못한 회한의 감정이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감상적인 리별은 바라지 않았으니 나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은것만은 사실이였다.

고령이 된 지금에 와서도 나는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적어도 몇번씩은 그런 대목에 서게 되는 법이다. 그때마다 종이장두께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사람들의 운명에서는 엄청난 편차가 생기게 되며 그 종착점은 서로 다른 극에 이르게 된다. 그때 어머니가 내앞에서 집걱정을 하였거나 내 마음의 탕개를 늦추는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하였더라면 깃을 펴고 대공으로 날을 차비를 하던 이 아들의 심중에서는 어떤 파문이 일었을가.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를 이끌고 소사하등판을 떠난 그때로부터 나는 전우들과 함께 수십년동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혈전의 길, 혹한의 길, 기아의 길을 걸어왔다. 그후에는 사회주의기치를 들고 창조와 건설의 반세기를 헤쳐왔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그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그런 곡경에 처할 때마다 나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나를 남만으로 떠밀어보내면서 어머니가 하던 말씀과 흰옷을 입고 나를 바래주던 어머니의 마지막모습을 회고하며 의지를 가다듬군 하였다.

(끝)

일 화

력사의 갈피를 더듬어

빛나는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37(1948)년 공화국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이 한창이던 때였다.

새 조국건설로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당시 형형색색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별의별 주장을 다 들고나오고있었다.

이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2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밝혀주시였다.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주체적건국로선, 자주적인 새 조국건설의 진로를 밝히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신념의 뚜렷한 과시였다.

공화국의 국호에도 그이의 투철한 자주적신념이 어리여있다.

당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나라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국호가 너무 길다느니, 외국에서는 나라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인민공화국으로 하든가 아니면 인민이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공화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견해를 두고 나라이름이야 우리가 주인이 되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지으면 되지 무엇때문에 남을 쳐다보겠는가고 하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에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성격과 참다운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부 사람들이 국호에서 인민을 빼자든가 민주주의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 단계의 임무를 옳게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나오는 매우 그릇된 주장이라고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국호를 제정함에 있어서 철두철미 주체적립장, 인민적립장에 서신 그이의 철석같은 신념, 그것은 우리 조국을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존엄높고 강위력한 나라, 영원한 인민의 삶의 터전으로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상감정의 분출이였다.

이렇게 되여 국호는 우리 국가의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명백히 살아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였던것이다.

불같은 조국애를 지니시고

주체93(2004)년 8월 어느날 혁명의 총대를 추켜들고 승리떨쳐온 자랑찬 로정을 돌이켜보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자신께서 총대를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하는한 우리 혁명은 굳건하며 우리 나라는 제국주의의 그 어떤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이 《힘의 정책》에 환장이 되여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쓴맛을 보게 될것이라고, 나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였다.

적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고 혁명의 원쑤들에게는 추호의 양보나 자비를 모르시는 희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0년대중엽 나라가 준엄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였다.

지휘성원들의 가슴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부풀어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자신께서는 노래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를 사랑한다고 하시였다.

순간 지휘성원들은 노래가사와 선률을 음미해보며 숭엄한 격정에 휩싸였다.

그이께서는 그 노래가사에 《푸르른 하늘엔 해빛넘치고 기름진 이 땅엔 사랑넘치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내 조국이 우리 인민의 행복과 삶의 보금자리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표현한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김일성**민족이 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푸른 하늘과 바다, 기름진 이 땅을 무한히 사랑하며 끝까지 지켜갈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휘성원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는 무겁다고 하시면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고, 선군의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라고 힘주어 선언하시였다.

*　*　*

명당자리에 비낀 인민의 모습

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인민대학습당

조국에서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속속 일떠서고있다.

명당자리.

조선말사전에는 명당자리에 대해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있어서 아주 훌륭한 자리라고 씌여져있다.

력사기록을 보면 대개 명당자리들은 돈많고 권세있는자들의 독점물로 되였으며 그러한 자리들에는 마땅히 권력기관이나 유흥장들이 건설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명당자리들은 돈에 따라 그 소유권이 결정되고있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그 명당자리가 근로하는 인민의것으로 되고있으며 경치좋고 교통도 편리하며 모든 측면에서 나무랄데 없는 좋은 자리들에는 다 인민을 위한 건축물들이 시대의 기념비로 솟아있다.

수도중심부의 제일 좋은 남산재의 명당자리에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이 바로 그러하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형성 특히 중심부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떤 건물을 앉히는가 하는데 따라 해당 나라와 사회제도의 본성과 성격이 집중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어느해인가 한 설계가가 남산재를 그냥 비워두는것이 아쉽게 생각되여 그곳에 정부청사를 앉힐 설계안을 만들었지만 인차 부결되였다. 나라에서는 그 자리에 정부청사가 아니라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이 다 와서 공부하는 인민대학습당을 건설하였다.

경치좋은 룡남산기슭에 서있는 **김일성**종합대학과 장대재우에서 그 모습을 자랑하는 평양학생소년궁전도 다 이렇게 세워진것이다.

뿐만아니라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하여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있는 뛰여난 명승지들에도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이 꾸려졌으며 교통이 편리한 곳마다에는 인민을 위한 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일떠섰다.

공기가 맑고 지대가 좋은 수려한 곳마다에는 학생소년궁전들과 소년단야영소들, 회관, 휴양소, 료양소들을 건설하여 아이들과 근로하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계절에 관계없이 흘러넘치게 하였다.

평양의 절경을 그려내기에는 자기 재능이 모자란다며 붓을 놓고 눈물을 흘렸다는 김황원의

문수지구의 병원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는 야영생들

릉라물놀이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근로자들

옛이야기가 되새겨지는 련광정이며 조국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을 전하는 대동문이 있는 대동강기슭에는 옥류관, 그 건너편에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세워져있다.

문수지구에는 녀성들을 위한 평양산원을 비롯하여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등 보건시설들이 줄줄이 일떠서 《병원촌》으로 불리우고있다.

최근년간에도 각지의 명당자리들에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인민야외빙상장, 과학기술전당,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 평양양로원과 같은 희한한 건축물들이 끊임없이 일떠섰다.

언제인가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을 찾았던 해외동포들은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다운 명당자리에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니 볼수록 별천지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곳은 부유한자들만이 향유할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조국의 명당자리들은 례외없이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들이다.

명당자리들에 세워진 건축물들이야말로 인민을 하늘로 내세우고 그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있는 조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앞으로 명당자리들에 인민을 위한 건축물들은 더 많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재능을 꽃피워가는 학생소년들

《나에게 생명을 준것은…》

《사경에 처했던 내가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도 훨씬 넘었다.》

이것은 평천구역 봉성1동에 살고있는 방하수로인이 한 말이다.

사람들은 방하수라고 하면 천리마시대 보건일군들을 머리속에 떠올리고있다.

주체49(1960)년 11월 13일 8살 나던 방하수소년은 뜻밖의 사고에 의해 전신 48%에 3도화상을 입어 흥남비료공장병원(당시)으로 실려갔다.

웃몸의 피부가 다 떨어져나간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고있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들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맥을 놓고 눈물만 흘리였다.

그러나 병원의료집단은 신심을 잃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동종피부이식수술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흥남비료공장병원(당시)에 실습나온 함흥의학대학 학생들도 피부이식수술에 적극 호응해나섰다.

병원의 수술실앞에서는 자기의 살을 먼저 떼여주겠다고 모여든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원들, 대학생들과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흥남시안의 사람들도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들속에는 방하수소년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이렇게 되여 가슴전면의 피부가 다 떨어져나가 홍벽이 드러났던 그의 웃몸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떼여준 피부가 이식되게 되였다.

그무렵 신문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오늘 아침 나는 《민주청년》의 기사를 읽고 대단히 흥분했다고, 이것은 로동당시대의 사변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 다음날에는 그곳 도의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이런 기특한 소행은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시며 치료사업을 잘 도와줄것을 부탁한다고 하시였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그이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간곡한 당부였다.

네차례나 진행된 피부이식수술을 거쳐 회복기에 들어설 때까지 그이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약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사랑에 고무된 흥남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이식해준 피부가 얼마인지 방하수소년은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소행이 있어 방하수소년은 몇달후 침대에서 일어설수 있었다.

주체50(1961)년 5월 함흥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시의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와 군중시위가 진행되였는데 그날 그이께서는 방하수소년을 안아 주석단 사열대우에 올려앉히시고 일군들에게 이애가 하수라고, 죽었던 애가 살아났다고, 하수는 로동당의 아들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아들이라고 교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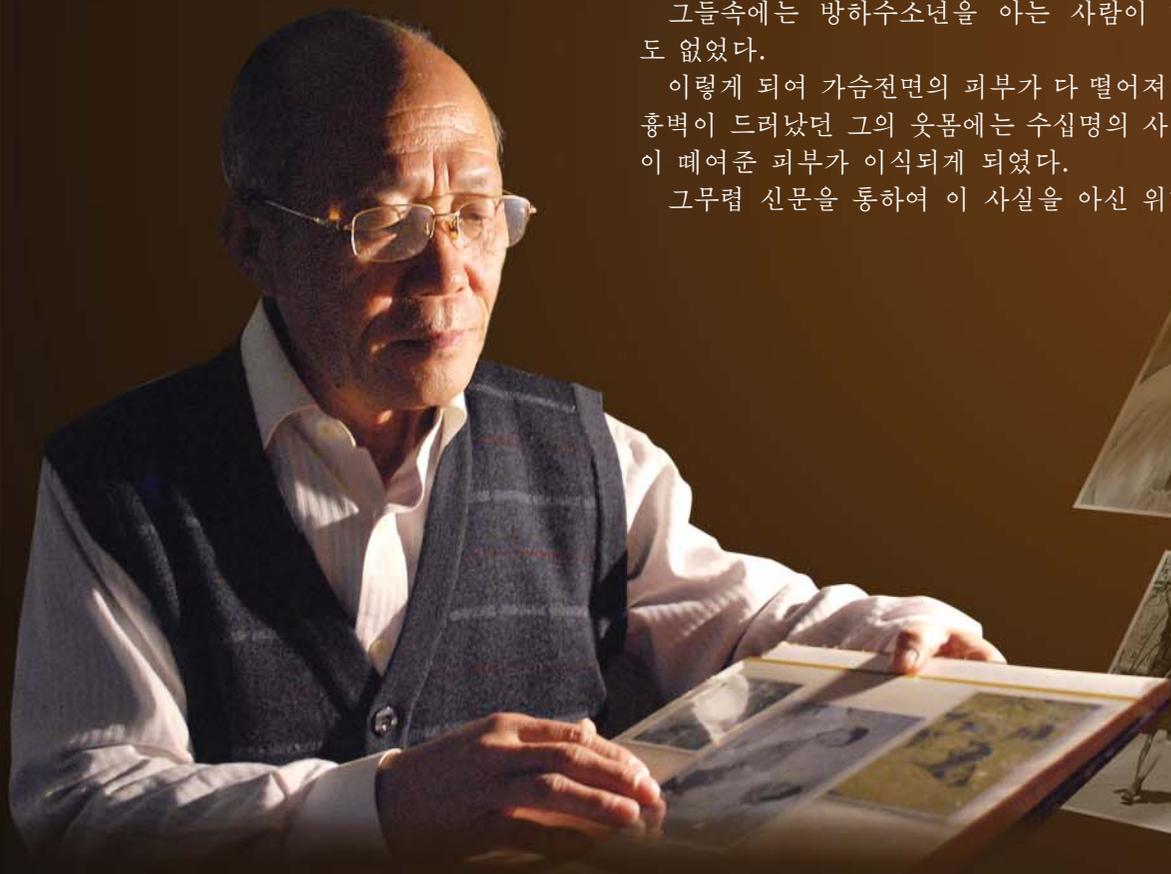
이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애를 끝까지 완치시켜야 하겠다고 거듭거듭 당부하시였으며 그후에도 방하수소년을 잊지 않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아낌없이 돌려주시였다.

1년 279일이라는 치료기간을 거쳐 완치된 방하수소년은 학교에 가게 되였고 그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어느한 중앙기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하게 되였다.

언제인가 그를 만났던 어느한 나라의 국가수반을 비롯한 외국인들과 수많은 해외동포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며 이와 같은 일은 사람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사랑의 기적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지나온 나날을 생각할수록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인간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진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혁신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닌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날수 있었다.

정말이지 사회주의제도가 나에게 생명을 안겨주었다.》라고 방하수로인은 늘 말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리　철

60여년전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피부가 3도화상을 입은 방하수의 몸을 덮었으며 지금도 그의 혈관에는 맑고 진한 그들의 피가 맥맥히 흐르고있다.

좌담회

사회주의교육발전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여

김원희: 교육위원회 부국장
렴수영: 평양시 모란봉구역인민위원회 교육부 부장
최순희: 보통강구역 락원소학교 교장
리　준: 대동강식료공장 로동자
엄향심: 본사기자

김원희

렴수영

최순희

리 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주체66(1977). 9. 5.]를 발표하신 45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였습니다.

김원희: 다 알다싶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진로를 밝히신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습니다. 교육테제에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교육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교육대강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인식의 주체는 사람들자신이라는 사상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 자각성과 적극성을 발양시키는것을 깨우쳐주는 교육방법의 본질적특성, 요구로 정식화하시였습니다.

오늘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육성문제를 중심에 놓고 교육발전의 길을 모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가슴깊이 절감하게 합니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가장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전민교육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을 사회주의교육방법의 하나로 정식화해주시였습니다.

렴수영: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중시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 학생들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교육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최순희: 오늘 우리 교육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어 우리 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건설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원대한 구상입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 우리 식의 독특한 원격교육체계와 온 나라를 뒤덮은 과학기술보급망, 교육학적요구가 완벽하게 실현된 학교들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들에는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건설하실 그이의 웅지가 깃들어있습니다.

렴수영: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7(2018)년 1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여 온 나라의 교육기관들에 교육경쟁열풍을 일으켜주시고 창조와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였습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부강번영할 사회주의조국과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전례없는 규모에서 진행하도록 하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를 발표하신데 이어 《우리의 미래를 교육에 맡기자!》,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맡아줄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자!》라는 구호들을 련이어 제시하시여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힘차게 걸어온 사회주의교육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찬란한 전성기를 펼치게 되였습니다.

기자: 최근시기 교육부문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김원희: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지만 최근년간 교육부문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특히 가장 큰 사변으로 되는것은 나라가 그처럼 어려운 때 학제를 1년 더 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체계를 완비한것입니다.

또한 기술대학을 비롯하여 대학수가 몇배로 장성하고 각급 학교들이 더욱 늘어났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냈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여 많은 학과목들이 개척되였으며 10월8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대렬이 장성강화되여 교육사업에서 앙양을 이룩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되였습니다.

최순희: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도 큰걸음을 내디디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초등교육을 원리화하는 원칙에서 새로운 교수참고서들이 리용되고있으며 견학, 참관, 관찰, 체험 등을 수업에 적극 받아들이는 다양한 교육형식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수수단, 수법들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을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로 만들기 위하여 수업시간의 밀도를 높이고 통합교육을 하고있으며 과외시간에는 종합실천활동소조, 글짓기소조를 비롯한 30개의 소조를 운영하여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날 많은 학생들이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창조형의 인재들로 자랄수 있게 준비되였으며 상급학교들에 진학하였습니다.

리 준: 온 나라에 조밀하게 뻗어나간 원격교육체계에 의하여 저와 같은 로동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지식형의 근로자로 되고있습니다.

110여명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를 졸업한데 이어 전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너도나도 주요대학들의 원격교육학부를 졸업하고있습니다.

저도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원격교육학부를 졸업하였습니다.

이 나날 대동강식료공장의 명주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인 부유선별에 의한 잔껍질분리기를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창의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저저마다 칭찬해줄 때마다 저는 원격교육의 덕이라고 말하군 합니다.

전민교육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사회주의교육테제가 있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실현되고있는것입니다.

렴수영: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년간 수많은 교육단위들의 면모가 일신되고있는 벅찬 현실은 드세찬 교육지원열풍속에 더 높이 비약할 사회주의교육의 래일을 확신하게 하고있습니다.

교육사업은 국가중대사이며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는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교육과 관련한 사업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도 례외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 모란봉구역에서는 교육지원사업에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고 하면서 모두 발벗고나서고 있습니다.

구역안의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부터가 학교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로 꾸리는데 관심을 돌리고 교육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습니다.

모란봉구역 서흥소학교, 모란봉구역 민흥고급중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학교들이 본보기학교들로 꾸려졌으며 이 학교들에서는 전국의 교육부문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와 경험들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열풍을 고조시키고있습니다.

김원희: 참으로 사회주의교육테제가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5년의 력사는 교육부문에서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된 자랑찬 행로입니다.

기자: 옳습니다.

주체교육발전의 생명선, 만년재보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교육사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남기신 고귀한 혁명유산중의 하나인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 때 우리의 교육은 최단기간안에 새로운 발전의 궤도우에 올라설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육강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래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여러분들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수 기

우리 가정의 행복을 두고

우리 가정이 창전거리에 새 보금자리를 펴던 때가 어제일만 같은데 벌써 10년이 되였습니다.

창전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해인 주체101(2012)년 6월에 준공되였으며 이틀만에는 새집들이가 있었습니다.

로동자부부인 우리 가정에도 새집이 배정되였는데 저는 정갈한 살림방들이며 가구까지 일식으로 갖추어진 새집이 정말 우리의 집이 옳은가 하여 문턱을 쉬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편지 두달 남짓이 흐른 그해 9월초였습니다.

새집에서 살게 된것만도 꿈같은 행복인데 글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실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못잊을 그날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집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집이 마음에 드는가고,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대동문동의 한칸짜리 살림집에서 살았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동무네 가정이 그전에는 대동문동의 한칸짜리 살림집에서 살다가 이번에 다섯칸짜리 살림집에 입사하였으면 덕을 크게 본셈이라고 하시면서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당이 아니였다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없었다면 저희처럼 평범한 로동자들이 이런 살림집에서 살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새집들이를 한 집에 갈 때에는 성냥을 가지고가는것이 우리 나라 풍습이기때문에 오늘 성냥을 가지고왔다고, 그리고 천연색TV와 그릇세트, 어린이용도서들도 가지고왔다고 하시며 우리 부부에게 새집들이를 축하하여 몸소 가지고오신 술도 부어주시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아이들을 고와하시는지 저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허물없이 방바닥에 앉으시여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그이께서는 소학교 2학년에 다니는 둘째아들 훈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시고 철없는 그가 그린 그림들을 보아주시며 꽃화단도 그리고 노란 꽃, 빨간 꽃도 그려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3살 난 맏아들 원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그이께서는 어디 갔다 이제 왔는가고 하시면서 그의 볼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시고 축구를 한다는데 나하고 한번 해볼가 하시며 한품에 꼭 안아주시였습니다.

모든것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새 살림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은것도 꿈만 같은데 우리 가정을 찾아주시여 사랑에 사랑을 거듭 안겨주신 그이의 은덕이 너무 고마와 우리는 울고웃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따사로운 품,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후 우리 집을 찾아왔던 외국인들이 로동자가정이 이런 살림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은것을 놀라와하며 자기네 나라에선 이만한 새집을 사려면 수십만US$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못잊을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꼭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결의를 다진 맏아들 원이는 조선체육대학의 박사원생이 되였으며 완성하지 못한 그림을 보여드렸던 8살의 훈이는 평양미술대학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커만 가는 우리 가정의 이 행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여 꽃피워진것입니다.

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어버이로 모시고 한식솔이 되여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으로서 맡겨진 사업을 더 잘해나가는 애국공민으로 살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려고 합니다.

평양우편국 경상체신분소
소장 장순녀

2중세계선수권보유자 윤금주

우리의 두주먹에는 조국의 존엄과 명예가 실려있다.

윤금주

제6차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서

《강하고 정확한 치기능력을 키워주는 감독의 훈련지도방법이 매우 독특하다. 세계선수권보유자인 그처럼 우리도 강한 특기를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기관차체육단 권투감독인 윤금주에 대해 선수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윤금주감독의 특기는 남자들과도 경기를 치를만큼 주먹타격힘이 세고 속도가 빠른것이다.

그는 자기의 특기로 지난 선수생활기간 2중세계녀자권투선수권, 3중아시아녀자권투선수권을 보유하였다.

함경남도 수동구(당시)에서 태여나 소녀때부터 권투를 배운 그는 인차 국내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내였으며 제2차 아시아녀자권투선수권대회 57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첫 국제경기에서 성과를 거둔 그는 그후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는 제3차 아시아녀자권투선수권대회와 제4차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 제5차 아시아녀자권투선수권대회와 제6차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 57kg급경기들에서 각각 제1위를 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권투강자로 등장하였다.

주먹타격힘이 남달리 강한 윤금주는 경기들에서 언제나 상대를 완전넘어뜨려 승부를 내군 하였는데 전문가들뿐 아니라 애호가들도 그의 경기는 정말 볼만하다고 평하군 하였다.

주체99(2010)년 중앙아메리카의 바베이도즈에서 진행된 제6차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 57kg급 결승경기는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놓았다.

결승경기에서 대전한 중국선수는 지난 시기 그와 순위권을 다투던 아시아녀자권투계에 잘 알려진 유명한 선수였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하여 파악이 깊은 조건에서 경기는 시작부터 치렬하였다.

상대선수는 먼저치기와 2, 3차재차치기로 시작부터 만만치 않게 공격해들어왔다. 대상의 특기를 파악하고있던 윤금주선수는 주도권을 놓지 않고 불의치기로부터 강한 리용반공격치기로 넘어가 상대의 공격을 허물어버렸다.

정확하고 강한 타격과 련결치기, 빠른 이동으로 그는 마침내 7:4의 점수차이로 상대를 누르고 1등을 하였다.

선수생활기간 그의 훈련지도를 맡았던 감독은 윤금주선수의 기질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훈련이건 경기이건 그는 경중을 따지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그로 하여금 강한 주먹힘을 지니게 해주었다.》

감독이 된 오늘에도 그는 선수시절의 그 열정으로 훈련지도에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다.

그는 늘 선수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군 한다.

《누구나 항상 모든것을 잘할수는 없다. 중요한것은 열정을 지니는것이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또 훈련할 때만이 앞으로의 성공을 담보할수 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감독생활 8년간에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키워낸 그는 지금 올림픽우승자를 키우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옛 토성랑의 새 모습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치 한생을 기울여 자기들을 낳아 키워온 어머니의 살뜰하고 부드러운 눈빛마냥 정겹게 새겨져있는것이 다름아닌 고향일것이다. 그래서 고향의 모든것은 사람들에게 류다른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지금도 그런 추억을 안고 인생말년을 보내고있을 동포들과 후손들에게 옛 토성랑이라 불리우던 보통강지구의 변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아마도 전변된 옛 토성랑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곳이 고향인 미국에서 살고있는 리순자를 비롯한 동포들의 감회가 누구보다 클것이다. 그만큼 해방[주체34(1945). 8. 15.]전 나라없던 그 세월 토성랑은 오막살이와 숨막히는 토굴집들이 밀집된 빈민굴지역이였다.

예로부터 토성랑은 해마다 큰물이 나면 보통강물이 넘어나 서평양과 대타령일대를 비롯한 온 보통벌이 물바다로 되였고 오막살이집들은 온데간데없이 강물에 떠내려가 사람들은 절망에 몸부림쳤다고 한다.

하여 이곳에 조상대대로 태

보통강반에 건설된 경루동의 일부

옛 토성랑일대

를 묻은 많은 사람들이 더는 참을수 없어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해방직후 나라에서는 첫 대자연개조사업으로 보통강개수공사부터 진행하였다. 강줄기를 봉화산서쪽으로 곧추 펴게 하였으며 본래의 강자리에는 운하를 건설하여 큰물때문에 고생하던 이 고장사람들에게 새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었다.

오늘 지난날의 빈민굴이였던 토성랑자리에는 천리마거리와 락원거리, 봉화거리 등이 형성되고 근로자들의 고층살림집들과 인민문화궁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체육관, 창광산호텔, 창광원, 빙상관, 청류관을 비롯한 웅장한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그리고 운하를 중심으로 량쪽에 수백정보에 달하는 공원, 유원지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져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옛 토성랑일대를 보다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이곳에는 시민들을 위한 체육봉사기지의 하나인 평양시체육촌이 새로 일떠섰으며 보통강유보도개작공사와 공원현대화공사가 결속되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적환경을 마련해주었다.

지난 4월에는 보통문주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건물과 자연의 융합, 생활공간과 생태공간의 유기적이며 과학적인 배치를 결합시킨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건설되여 평범한 근로자들이 입사하였다.

《호화주택구》라고도 불리우는 주택구는 평양에서 제일 멋있는 곳,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에서 《경루동》이라고 부르고있다.

경루동에 입사한 주민들은 각 부문의 로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자, 교육자를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다.

그들속에는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김책공업종합대학 생체공학연구소 실장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무철과 과학기술보급관리연구소 연구사인 공훈과학자 오만건 등도 있다.

새집에 입사한 그들은 다른 나라같으면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호화주택을 받는 이런 꿈같은 현실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고, 진정 내 조국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의 나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격정을 터놓았다.

이곳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해방전 《재난의 강》, 《원한의 강》, 《눈물의 강》, 《한숨의 강》이라 불리우던 보통강이 이제는 락원의 강,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변모되였음을 느낄수 있다.

아마 동포들도 이곳을 찾는다면 예가 그전날의 토성랑이 맞긴 맞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많이도 흘러간 옛 추억을 불러올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송대혁

평양시체육촌

유전학자 계응상

《자그마한 누에를 다루는 학자에게도 우주와 같이 무한대한 공간과 인력권과 같은 위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 나는 마침내 비상한 지력권을 가지고있는 신비한 별천지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찾아낸 그 세계,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입니다.》

(계응상선생이 일흔번째 생일날 위대한 수령님의 친서를 받아안고 한 말중에서)

주체44(1955)년 여름 유럽의 어느한 나라의 수도에서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가 열렸다.

한 과학자의 토론이 특별히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토론에서 당시 세계과학계에서 공인되고있던 《혼합유전설》과 《환경유전설》을 비롯한 《신유전학》의 부당성을 론증하고 유전자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생물유기체들에서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난 특성들은 후대에 유전되지 않으며 오직 유전자에 의하여 나타난 특성만이 유전된다는것을 밝혔다.

그의 토론은 당시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로운 과학적발견으로서, 특히 론문전반을 관통하고있는 과학자의 확고한 신념으로 하여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바로 후날 세계유전학, 육종학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조선의 유전학자 계응상이였다.

이미 60살이 넘은 체소한 몸집에 흰수염이 드리워져있었지만 로과학자는 과학의 새 세계를 발견한 환희와 긍지로 하여 열정에 넘쳐있었다.

어떻게 되여 그렇듯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게 되였는가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계응상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나는 과학자로서 나이 50이 넘어서야 진정한 어머니조국을 찾았다. 나를 이 조국에 불러주신분은 조선인민이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시고사는 **김일성**장군님이시다.

그분의 령도밑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기적도 낳게 되는것이다.》

그의 진정이 담긴 이 말, 여기에는 그가 40여년간 과학탐구의 길에서 모대기며 찾은 인생의 진리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불행한 나그네

1893년 12월 27일 평안북도 정주시의 산골마을에서 태여난 계응상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두뇌가 명석하였다.

계응상이 서당에서 공부를 마친 후 마을어른들은 그를 훈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배움에 대한 포부와 열망이 높았던 그는 경마장청소와 신문배달로 학비를 마련하고 한지나 다름없는 다락방에서 무시로 겹쳐드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중학교를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때 시험결과를 발표하던 서무계원은 《계응상, 정주산골에서 짚신신구 나타난 보기 드문 수재, 시험 전과목 100점만점》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중학을 졸업하고 집에 들린 계응상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장차 우리 나라를 비단의 나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학문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후 계응상은 일본으로 건너가 어느한 대학의 잠학부에 입학하였으며 1923년 4월에는 제일 높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연구생이 되였다.

연구생으로 있으면서 그는 누에유전학, 생리학 및 해부학부문에 대한 여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 농학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일본유전학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본인으로 동화되지 않고 조선민족의 얼을 지키려는 그의 재능을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식민지지식인의 기구한 운명은 그를 정처없는 방황의 길로 떠밀었다. 중국 광동, 홍콩, 웰남 등 《무전려행》과도 같은 고달픈 길들에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는 계응상

그를 기다린것은 무시와 멸시, 박해뿐이였다.

고심참담하게 수집정리했던 연구자료를 다른 나라의 파렴치한 《학자》에게 통채로 도난당하고도 억울한 울분을 혼자서 새겨야만 했던 식민지지식인의 처지는 비참하였다.

그의 꿈은 불모의 땅에 던져진 하나의 작은 씨앗에 불과했다.

하기에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과학연구사업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행복이였고 일정한 명성도 주었지만 품어주는 조국이 없던 그 시기의 나는 정녕 불행한 나그네에 불과했다.》

인생전환의 길에서

쓰디쓴 타향살이끝에 계응상은 주체28(1939)년 자기의 연구자료와 새 품종의 누에알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경기도 수원농사시험장과 재령잠업연

구소에서 과학연구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는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

그후 해방[주체34(1945). 8. 15.]을 맞이하였지만 역시 미군이 강점한 남조선에서 그는 자기의 리상을 실현할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그의 운명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계응상의 애국심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10월 남조선에 있던 그를 데려오도록 하시였던것이다.

유전학자와 처음 만나신 자리에서 그의 눈물겨운 과거를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백미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에 기와집을 쓰고살기를 바라왔다고, 이제부터 선생은 인민의 그 소원가운데서 비단옷을 맡아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잠업기술인재육성사업과 새 누에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갈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시였다. 그리고 과학적진리앞에서 무한히 성실하고 대바른 그의 과학적신념을 더없이 존중해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믿음의 손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때부터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후대교육을 맡아하면서 과학연구사업에 열중하였다.

그는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조국의 현실과 기후풍토에 맞으며 생산성이 높고 병에도 잘 견디는 새 누에품종들을 얻어내였다.

당시 우리 나라 농림수산연구론문 제1호에는 그의 고심어린 탐구의 흔적이 력력한 박사론문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해방후 우리 나라 농학부문의 첫 과학론문으로 출판된 《가잠의 유전에 관한 연구》였다.

그는 주체37(1948)년 2월초 새 조선에서 발급한 박사증 제1호를 수여받았다.

그후에도 그의 연구사업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는 현대생물학의 기초리론과 유전 및 육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조국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누에원종생산공급체계를 세워 누에치기를 과학화하는 등 나라의 잠학을 발전시켰다.

그는 강의와 연구로 바쁜 속에서도 《작잠학》, 《피마잠》, 3권으로 된 《계응상선집》을 비롯하여 누에해부, 누에유전, 누에치기와 관련한 도서들을 집필하였다.

원사 교수 박사인 계응상은 생전에 인민상,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그의 묘는 애국렬사릉에 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리 철

계응상선생의 묘는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다.

조선민족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교수 박사 윤상호

《지금도 일본땅에서 흘려간 청춘시절의 한때가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그 시절에 나는 조선사람이였지만 일본사람흉내를 내며 일본학교와 대학에 다니였습니다. 마치 바람방향에 따라 날려가는 고무풍선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허두를 뗀 김형직사범대학 외국어학부 영어1강좌 교원인 교수 박사 윤상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일본인》으로 행세하며 홍안의 꿈을 실현해보려 했던 자기 운명에 대해 말하였다.

그는 도꾜에서 막벌이군가정의 셋째아들로 태여났다.

어릴적부터 남달리 총명했던 그를 위해 부모들은 왼심을 많이 썼다고 한다.

대학까지 졸업시키기 위해 부모들은 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달아주어 일본학교들에서 공부시키였다. 하여 그는 도꾜대학에 입학하게 되였고 최우수성적으로 졸업도 하였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이 없듯이 조선사람이라는것이 알려져 그의

주체49(1960)년 8월 귀국선에 올라

앞길은 막혀버리고말았다. 민족차별이라는 말뜻을 뼈아프게 새긴 계기였다.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그와 부모들은 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용약 나서게 되였다.

《얼마후에 조국에로의 배길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그렇게 되여 나도 래일의 꿈을 안고 귀국선에 오르게 되였습니다. 그날 부모님들은 자기들이 미련했다고, 조국에 가서 배우고 또 배워 조선민족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조국에서는 일본말밖에 모르는 그를 단기강습소에 보내여 조선말을 배우도록 하였으며 그후에는 해주교원대학(당시)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었다.

졸업후에 그는 김형직사범대학 외국어학부 영어강좌 교원으로 사업하였다.

거듭 조국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을 때마다 그는 다시는 일본에서처럼 제정신이 없이 살아서는 안된다는 마음을 굳히였으며 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의 사색과 탐구, 실천은 어떻게 하면 후대들을 실력있는 인재로,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겠는가 하는데로 지향되였다.

그는 외국어교육에서 학생들의 실천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색을 거듭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실천능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과목인 《번역실습》개척에 나섰다. 방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밝히고 그를 위한 방법론들을 하나하나 완성하여 《번역실습》과목의 길을 열어놓은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의 어학실력을 높일수 있는 새 학과목들도 련이어 개척하였다.

맡은 사업에 언제나 성실한 그는 후대교육사업에서 사소한 사심과 에누리도 모르고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으며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 사소한것이라 해도 거기에 쏟아붓는 그의 뜨거운 진정은 학생들을 감동시켰다. 학생들은 언제나 참신하고 진지한 그의 강의를 기다렸고 자기의 의문점들을 스스럼없이 제기하군 하였다.

그 나날 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전국적인 외국어경연들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좌장으로, 부학부장으로 사업하는 나날에도 그는 학부를 실력있는 학부로, 많은 학생들을 최우등생, 유능한 전문가들로 키워냈다.

《바람방향에 따라 날려가던 고무풍선처럼 될번 했던 내가 조국에서는 후대교육의 굳건한 섬돌이 되였는가봅니다.》

이렇게 수십년을 후대교육사업에 몸과 마음을 바쳐온 그도 이제는 86살이 되였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의 부흥에 적은 힘이나마 기여하려는 그의 마음은 늙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교육사업과 교재집필에서 교육자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가족과 함께 흘러간 세월을 돌이켜보며

상 식

초마늘의 효 능

마늘은 오래전부터 건강장수식료품으로 리용되여왔다. 특히 초마늘의 효과는 매우 크다.

초마늘은 심장병, 뇌혈전, 페암, 피부암, 대장암의 예방에 좋다. 이밖에도 항균작용, 고혈압조절작용, 저혈압개선작용을 한다.

하루 3개정도 먹으면 우에서 지적된 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할수 있다.

초마늘 1kg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당한 량의 당분을 물(300ml)에 풀고 끓인 다음 식힌다. 여기에 식초(200ml)를 둔다.

깨끗이 씻은 마늘을 넣고 밀페하여 랭장고에 보관한다.

이렇게 만든 초마늘은 한달정도면 먹을수 있다.

* * *

전통적인 훈증료법

한여름의 무더위가 가셔진 지금과 같은 시기는 자신과 식구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매우 좋은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훈증료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동포여러분들중에 훈증료법에 대해 아시는분들이 계시는지.

그럼 먼저 훈증료법이란 어떤 치료방법인가에 대해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훈증은 말그대로 연기와 증기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병치료에 해당한 약초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와 약초를 끓일 때 나오는 증기를 말합니다.

치료효과와 실리도 큰 이 치료방법이 중세봉건국가들에서 주로 궁중에서 많이 진행되다나니 평민들속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것을 평안북도고려병원의 과장 장재필(67살, 공훈의사)선생을 비롯한 의료집단은 수십년전부터 훈증료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력사문헌자료들을 탐구하는 과정에 과학적인 치료원리를 파악하였을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질병들에 따르는 치료방법과 약초들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몇해전에는 훈증료법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습니다.

훈증료법은 약물증기의 온열작용과 약물흡수에 의한 약리작용에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고려약을 물에 달이면 항균, 항염, 아픔멎이, 혈압내림, 혈관확장 등 여러가지 약리적기능을 수행하는 정유물질이 증기로 되여 날아나게 됩니다.

아시다싶이 사람의 피부에는 배설과 흡수기능을 수행하는 땀선과 피지선이 약 200~250만개정도 있는데 땀선은 배설기능을, 피지선은 피부보호와 흡수기능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이 땀선과 피지선은 피하조직에 있는 모세혈관과 직접 련결되여있습니다. 때문에 소분자형태로 된 정유물질은 피지선을 통해

인체에 그대로 흡수되는데 이것은 투약하였을 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훈증치료에는 우리 나라에 흔한 백수십가지의 약재로 만든 약물이 리용된다고 합니다.

훈증료법으로는 피부과질병, 부인과질병, 내과, 이비인후 및 두경부외과 등은 물론 무균성괴사, 신경근염, 하반신 및 전신완전마비환자들도 완쾌시킬수 있는데 한번에 10~15분씩 하루 1~2회, 7~10일을 한 치료주기로 합니다.

장재필선생은 전신치료와 국부치료, 흡입치료를 각각 따로따로 할수 있는 훈증치료기들도 창안하여 치료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훈증치료기는 밀페된 공간에 환자의 전신이나 국부를 들여놓고 그아래에서 약탕관에 열을 주어 정유가 증기로 되여 올라오도록 설계되여있습니다.

치료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훈증치료기의 아래에 설치되여있는 약탕관에 처방에 따르는 고려약재들을 골고루 섞어 약재의 5배되는 물을 붓고 끓입니다.

42℃정도의 약증기가 올라오면 환자는 이것을 병조부위에 가져다댑니다.

이때 체내의 약물흡수량은 먹을 때에 비하여 10배이상으로서 뚜렷한 치료효과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활액낭염환자들은 많은 경우 천자법으로 치료하고있는데 치료기일이 길고 고통스러울뿐 아니라 회복률도 낮습니다. 그러나 훈증치료기안에서 정유물질들이 들어있는 증기가 피부면에 닿게 하면 흡수경로를 따라 관절강을 거쳐 활액막에 직접 침투되게 됩니다. 이때 약리작용이 강한 정유물질에 의해 막에 존재하는 세균과 염증은 제거될뿐만아니라 세포의 활성이 높아져 막의 기능이 회복되며 손상된 연골조직도 재생됩니다.

약물농도를 높여주면 기능회복도 빠르기때문에 1주일간의 훈증치료를 받으면 관절기능이 회복될수 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운산군 읍에 사는 김의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0흉추골절로 인하여 하반신이 완전마비되였던 내가 대지를 다시 걸을 때의 심정을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훈증치료는 나에게 포기했던 생을 다시 주었다.》

뿐만아니라 강원도 원산시에 사는 김설희녀성은 《약물농도를 높여주어 1주일간의 훈증치료를 받았더니 관절기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탕약속에서 정유물질이 증기로 되여 날아나는 시간은 약 1시간~1시간 20분정도입니다. 한명의 치료시간은 10~15분정도이므로 정유물질이 증기로 날아가는 시간이면 4~5명을 치료할수 있을것입니다. 때문에 훈증은 고려약재를 절약하면서도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실리가 있는 치료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지금 조국의 수많은 치료예방기관들에서는 훈증료법을 널리 받아들이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구 려

구려는 고조선, 부여, 진국과 함께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중의 하나였다.

구려는 고조선의 후국으로 있다가 B.C. 15세기중엽에 분립하여 독자적인 고대국가로 되였다.

후국당시 구려지역에는 연나부, 관나부, 순나부, 계루부, 절나부의 5부 정치세력이 있었다. 그중 큰 세력이였던 연나부는 나머지 부들을 규합하여 고조선의 중앙왕권에 대립되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라났으며 마침내 B.C. 15세기중엽에 떨어져나갔다.

구려의 령역은 오늘의 환인시일대를 중심지로 하여 압록강중류지방-혼강류역과 자성강, 장자강, 위원강, 충만강류역과 함께 혼화중상류, 휘발하상류류역을 포괄하고있었다.

구려의 최고통치자인 왕으로는 대대로 연나부출신귀족들만이 될수 있었다.

구려 역시 부여와 마찬가지로 전조선의 후국으로 있었던 것만큼 통치제도에서도 고조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한 실례로 구려의 상층통치배들과 각 부의 지배층을 이룬 유력한자들이 참가하는 제가평의회를 들수 있다.

이 제가평의회는 나라의 중요정사들을 협의하는 귀족민주주의적협의기구로서 소수 특권층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기구였다.

중앙관직은 알수 없으나 연나부출신의 귀족들이 대신급관료로 임명되였다고 보아진다.

구려국의 지방행정단위는 5부로 편성되여있었다.

원래 5부는 각기 독립적인 소왕국을 이루고있다가 그중 강한 연나부세력에 의해 통합되여 하나의 구려국을 이루게 되면서 지방행정단위로 개편된것이다.

5부가운데서 연나부는 국왕이 직접 다스린 직할지였고 그밖의 4부는 그 우두머리들인 대가들이 통치하였다.

구려의 군대는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져있었고 주요무기는 비파형단검, 비파형창, 좁은놋단검, 좁은놋창, 청동도끼, 쇠도끼, 쇠창, 쇠활촉 등이였다.

구려에서는 일찍부터 청동야금술 특히 제철수공업이 발전하였다.

B.C. 1000년기에 들어서면서 구려에서는 청동기생산이 더욱 발전하였다.

그것은 B.C. 9~B.C. 5세기경의 유적인 길림성 집안시 태평구의 한 돌각담무덤에서 발견된 초기의 좁은놋단검, 좁은놋창, 청동도끼류, 잔줄무늬거울 등 청동기들을 통해서 알수 있다. 특히 B.C. 1000년기후반기의 유적인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남파동유적을 비롯한 구려지역의 여러 유적들에서 주강, 단조제품들이 적지 않게 나왔는데 이것은 구려에서 제철, 제강업이 남달리 빨리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구려에서는 농업생산이 늘어났으며 《과하마》로 불리우는 억센 말을 잘 길렀다. 그리고 각종 수공업과 교역을 발전시키는 등 생산력발전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의 노예제경리가 전반적으로 그러하였지만 특히 평야지대가 적은 구려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대규모노예제경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중소규모의 노예제경리가 발달하였다.

B.C. 1000년기중엽부터 구려지역에서는 제철기술이 발전하여 주강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값싸고 우월한 철기의 대량생산과 보급은 로동생산성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였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에 토대하여 구려국에서는 봉건적생산관계가 확립되여갔다. 구려국 5부의 하나였던 계루부에서 봉건적관계가 발생하고있던 B.C. 3세기초에 부여에서 고주몽집단이 이동하여왔다. 그들은 계루부를 장악한 다음 B.C. 277년 연나부왕권을 대신하여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를 세웠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박사 권승안

고려 25대왕의 릉 새로 발굴

개성시 해선리에서 고려 25대왕의 릉을 새로 발굴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문화성 민족유산보호국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송도사범대학 력사학부가 공동으로 력사유적들에 대한 조사 및 발굴사업을 진행하였다.

개성시 해선리 소재지로부터 서남쪽으로 1.2km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려시기의 왕릉급무덤으로 인정되는 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굴한 무덤은 계단식으로 쌓은 3개의 화강석축대들에 의하여 4개의 구획으로 나뉘여져있다.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1구획에는 돌란간시설을 갖춘 무덤무지와 망두석이 있고 한단씩 낮아진 2구획과 3구획에는 각각 돌사람상이 한상씩 세워져있으며 4구획에는 제당터가 있다.

정교하게 가공한 돌로 규모있게 쌓아만든 무덤칸의 크기는 남북길이 365㎝, 동서너비 300㎝, 높이 235㎝이다.

무덤칸의 동쪽벽에는 일부 부부무덤들에서 볼수 있는 《혼》이 드나들게 된 구멍이 있으며 바닥에서는 무덤천정과 벽들에 그렸던 벽화쪼각들이 드러났다.

무덤에서는 봉건시기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를 붙여줄 때 그의 덕망을 칭송하는 글을 새긴 옥책의 일부분과 금도금한 철제품 등 여러 유물이 발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이번에 발굴된 무덤이 건축형식과 규모, 유물들로 보아 14세기에 만들어진 왕릉급무덤이며 그 무덤의 동쪽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경효(충렬)왕의 안해인 안평공주의 무덤(1979년 발굴)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도 경효왕릉이 개성부에서 서쪽으로 12리정도 떨어져있다고 기록되여있으므로 고려 25대왕(1236년-1308년)의 릉으로 볼수 있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고려 25대왕인 경효왕의 무덤이 새로 발굴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 * *

력사인물

천문학자 김석문

김석문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천문학자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였는데 남달리 력학과 천문학분야에 조예가 깊었다.

17세기초엽 천문대를 책임지고있던 삼촌의 영향을 받아 김석문은 천문리론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여러 천문리론들을 비판분석하고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 《역학도해》(6권)를 서술하였다.

책은 44개의 그림과 12만 7 200여개의 해설로 되여있다.

그가 책에서 제기한 3대환부공설은 당시의 천원지방설과 천동설을 비판하고 대담하게 지동설을 주장한 특이한 견해였다. 그의 우주구조론 역시 천체력학적으로 관측과 계산에 기초하지 못한 점들은 있으나 그것은 지전설로 일관되여있으며 중세의 지구중심설로부터 근대적인 태양중심설에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의 독특한 리론이였다.

김석문이 제기한 이러한 견해와 리론들은 후에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일으켰다.

* * *

문화유산을 통해 본 민족의 우수성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수많은 민족문화유산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그 문화유산들에는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그대로 비껴있다.

선조들이 만들어 리용한 고유한 조선말과 글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말은 말소리가 아름답고 류창하며 발음에 의한 형상이 풍부할뿐 아니라 어휘와 표현, 문체가 세련되여있는 등 우수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있다. 특히 본딴말은 세계의 다른 언어들에 비할바없이 풍부하다.

현재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이 수천개의 서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생활하고있다. 그중에서 사용인구가 5 000만명이 넘는 언어는 조선어를 비롯하여 10여개정도이다.

어느해인가 진행된 《언어올림픽》에서는 19개의 경기종목을 선정하고 최우수언어들을 선출하였다. 그중에서 본딴말이 가장 많은 언어는 조선어라는것이 인정되여 금메달을 받았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는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 고생하는 소수민족들에게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말을 조선글자로 표기하도록 하고있다.

그 어느 나라 말도 다 적을수 있고 인간의 감정정서를 방불히 표현할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있는것은 민족의 긍지이며 자랑이다.

세계중세도자공예사상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고려자기도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7세기전반기에 건설된 경주첨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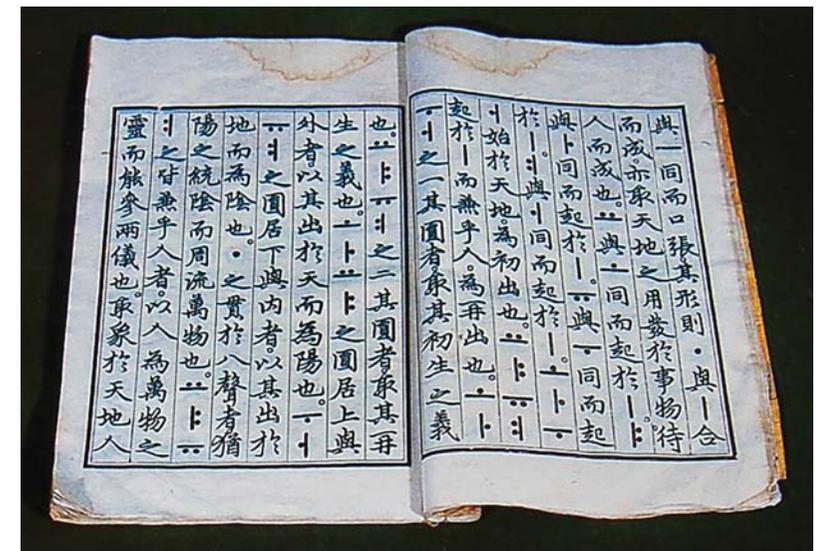
고려자기들의 일부

고려자기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고 우수하였던 자기는 청자기이다.

고려청자기는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예술적재능과 높은 과학기술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적재부이다.

고려자기의 다양하고 조화로운 색갈가운데서도 제일 아름답고 유명한 색은 비색(일명 비취색)이다. 맑은 물속의 흰 차돌우에 비낀 푸른색과 같은 비색은 명랑하고 깨끗하며 점잖고 고상한것을 즐기는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반영하고있다.

세상사람들이 고려청자기를 보물처럼 귀중히 여기는 리유도 독특한 비취색에 있다고 할수 있다. 고려청자기색은 예로부터 밝고 선명하고 은근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취미, 기호를 반영하고 있는 예술적으로 완벽한 색채라고 할수 있다.

고려청자기는 형태와 장식무늬, 특출한 색이 조화를 이루

1444년에 창제된 훈민정음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경》

《직지심경》의 뒤부분에는 《1377년 정사 7월일 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어 도자공예의 극치를 펼친것으로 하여 당대는 물론 오늘에 와서도 민족의 명물로 되고있으며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있다.

고려청자기를 두고 세상사람들은 《세계적인 천하일품》, 《세계의 일등예술품》, 《조선의 고려청자기가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절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사용하였다.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발명될수 있은것은 10~11세기에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서적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수요가 커진데 있었고 인쇄기술자들에게 목판 및 목활자인쇄기술과 관련한 오랜 경험과 토대가 있은것과 관련된다. 또한 이 시기에 금속주물 및 가공기술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데 있었다.

고려에서 금속활자를 처음으로 발명한 시기는 11세기말~12세기초로 보고있다. 유럽에서 15세기에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에 비해볼 때 이것은 고려에서의 금속활자발명과 사용이 수백년이나 앞섰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시 국가적으로 금속활자를 주조하고 그것으로 도서를 인쇄하는것을 장악하는 서적원을 설치한 사실과 《동국리상국집》을 비롯한 력사자료들은 이 시기 금속활자의 사용이 활발하였으며 인쇄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금속활자를 적극 사용하였다는것은 당시 국가적인 사업으로 많은 책들을 찍어냈다는것을 보여주며 다량의 도서출판은 해당 시기 사람들의 문화생활과 의식수준이 높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밖에도 선조들은 측우기를 발명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진 비단을 만들어냈으며 옷차림문화와 음식문화를 발전시킨것을 비롯하여 우수한 문화적재부들을 창조하였다.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들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주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옳바른 정책에 의해 문화유산들이 보존되고 력사에 묻혀있던 유적유물들이 새로 발굴고증되고있으며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봉건왕조시기 유물들의 일부

측우기와 측우대

혼천의

천자총통

지자총통

상식

고인돌무덤

고인돌무덤은 고조선을 비롯한 우리 나라 고대국가시기의 대표적인 무덤이였다. 특히 고조선의 수도였으며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던 평양부근에는 고인돌무덤이 집중되여있다.

고인돌무덤은 지상 혹은 반지하에 웅근판돌과 쪼각돌로 돌관을 만들고 그우에 5~6t 또는 수십t 되는 큰 뚜껑돌을 올려놓은 무덤이다. 무덤의 뚜껑돌은 례외없이 지상에 드러나있다.

대체로 고인돌무덤은 큰 강과 그 지류의 기슭, 평탄한 지대와 산 혹은 언덕비탈에 많다. 무덤은 간혹 1~2기씩 있는것도 있으나 대부분 7~8기 또는 10여기를 단위로 하여 100~300기로 구성된 떼를 이루고있다.

고인돌무덤은 돌로 축조한 하나의 건축물로서 수천년동안 무덤으로 리용되였으며 여러 류형으로 구분된다.

*　　　*　　　*

《례성강도》로 이름을 남긴 리녕

조선민족의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로 등장한 고려는 경제, 문화가 발전하여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

특히 12세기전반기 고려에서는 문화가 상당히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선조들은 유럽보다 300여년이나 앞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하였고 8만대장경과 질좋은 문방구류(종이, 붓, 먹, 벼루) 그리고 세상사람들이 천하명물, 보배로 여기는 고려자기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문화의 발전으로 하여 이 시기 다른 나라의 무역배들이 앞을 다투어 례성강하구의 벽란도로 몰려들었다.

고려의 활발한 무역활동을 생동하게 형상한 화가가 12세기전반기에 활동한 리녕이였다.

그는 명화로 수많은 사람들을 경탄시키였다.

리녕은 젊었을 때부터 명화가로 이름을 날렸다. 리녕의 특기는 아름다운 풍경을 잘 형상해내는것이였는데 당시 그를 룽가할 사람이 없었다.

고려왕 인종과 송나라왕 휘종은 그림을 대단히 좋아한 왕들이였다. 하여 두 나라사이에 사신들이 래왕할 때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반드시 일행에 끼여있었다.

고려의 소문난 명화가 리녕이 송나라왕 휘종을 감탄시킨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한번은 리녕이 사신을 따라 송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리녕과 같은 재능있는 고려의 화가가 자기 나라를 방문한것을 알게 된 휘종은 그에게 좋은 그림 한폭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리녕은 왕의 부탁인지라 그 요구를 쾌히 접수하고 우리 나라의 례성강풍경을 그린 《례성강도》를 그려주었다. 원래 풍경화에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던 리녕이 이웃나라 왕의 요구로 그린 그림이니 훌륭한 명화가 될것은 더 말할나위가 없었다.

그림을 좋아하고 특히 명화를 많이 보아온 휘종이였지만 리녕의 그림을 보자 무릎을 탁 치면서 《고려의 화가로서 외교사절을 따라온 사람이 많았지만 리녕과 같이 그림그리는 수법이 절묘한 사람은 처음 본다.》라고 찬탄하여마지 않았다. 그리고는 리녕을 극진히 환대하였을뿐 아니라 여러 화가들에게 그의 수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만큼 리녕의 그림이 매우 뛰여나 휘종의 마음을 휘여잡았다는것을 보여준다.

리녕의 풍경그림은 그때 여러 나라에서 아주 진귀한 보물로 취급되였는데 그 솜씨가 너무도 신기하여 보는 사람들이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날 송나라사신이 고려에 큰 규모의 사절단을 데리고왔다.

송나라사신은 고려왕 인종에게 그림 《천수사남문도》를 선물하였다.

그 그림으로 말하면 송나라사신이 그림을 좋아하는 고려왕을 위해 송나라장사군들을 추동하여 특별히 많은 돈을 들여 사가지고온 명화였다.

인종이 대단히 기뻐하는것을 본 사신은 이 그림은 자기 나라에서도 가장 귀중한 보배로 여긴다고 자랑하였다. 인종은 그림수법이 어딘지 모르게 낯익어보였으나 사신의 설명에 끌려들어 좋은 명화를 또 한폭 얻었다고 못내 기뻐하였다. 그는 선물로 받은 이 훌륭한 명화를 자기 혼자 보기가 아쉬워 리녕을 불렀다.

리녕과 함께 명화를 감상도 하고 이런 그림을 얻은것을 자랑도 하고싶었던것이였다.

왕궁에 들어온 리녕은 그림을 보자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 모양을 본 인종은 리녕같이 뛰여난 화가도 보기 드문 명화에 크게 감탄한것이라고 제나름으로 해석하면서 만족하여 물었다.

《그대도 이런 명화는 처음 보는것이냐?》

리녕의 대답은 왕을 놀라게 하였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 그림은 신이 그린것인줄로 아뢰옵니다.》

이번에는 인종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대가 잘못 본것이 아니냐? 이 그림은 방금 송나라사신이 바친것이니라. 수천금을 주고 산 그 나라의 제일가는 보물인데…》

《신이 어느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오리까. 이 그림은 분명 신이 그린것이 틀림없는줄로 아뢰나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네 무엇을 표적으로 삼을수 있느냐?》

《그 그림을 신에게 주시면 이 자리에서 표적을 찾겠사오이다.》

인종은 그의 말을 듣고보니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어딘지 모르게 화법이 낯익어보이는 느낌을 받았던 생각이 되살아났다. 그래 반신반의하면서 그림을 리녕에게 내주었다.

리녕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미묘하고 착잡한 빛이 어리였다.

오래전에 자기가 온넋을 다 쏟아부은 창조물을 뜻밖에 다시 보게 된 감회라고 할가, 기쁨이라고 할가, 외국의 보물로 되여버린 미술작품을 보게 된 창작가의 서글픔이랄가.

이윽고 리녕은 그 그림을 살짝 뒤엎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뒤면에 풀로 붙인 자리를 자신만만하게 뜯었다.

인종은 저러다가 귀한 그림을 손상시키지 않을가 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좌우에 서있던 고관대작들도 임금에게 올린 다른 나라 사람의 값비싼 선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그 무엄한 행동에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러거나말거나 리녕은 그림판뒤에 덧붙인것을 깐깐히 뜯어내고나서 그 그림을 왕에게 도로 바치였다. 풀로 봉한것을 뜯은 자리에는 과연 리녕이 그렸다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있었다.

인종은 다시한번 크게 놀랐다.

이처럼 한폭의 명화가 인종을 그토록 경탄시킬수 있었던것은 리녕의 그림솜씨가 훌륭하였기때문이였다.

리녕은 12세기전반기 고려의 발전된 회화수준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국내는 물론 이웃나라들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화가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식

상 식

엽전은 조국에서 1633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20세기초까지 류통되였던 금속주화를 말한다. 금속주화의 이름은 《상평통보》였다.

《상평통보》라는 이름은 조선봉건정부의 중앙관청의 하나인 상평청에서 주조한데로부터 나왔다. 그 후 조선봉건정부의 중앙관청과 각 지방관청들에서 주조한 구리돈도 모두 《상평통보》의 이름으로 나왔다. 당시 인민들은 이것을 엽전이라고 하였다.

《상평통보》 1잎은 1문 또는 1푼이라고 하였으며 10잎은 1돈(전), 100잎을 1냥이라고 하였다. 보통 100잎(1냥)을 한줄에 꿰였는데 이것을 1민이라고 하였으며 10냥의 엽전(1 000잎)을 1관이라 하였다.

엽전이 나온 후 그 주조는 계속되였으며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까지만 해도 근 1 000만냥이 주조되고 류통되였다.

《상평통보》가 전국적범위에서 류통되게 된것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상품화페관계의 발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로서 이것은 사회경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 * *

중앙식물원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중앙식물원이 자리잡고 있다.

주체48(1959)년 4월에 창립된 중앙식물원은 지난 수십년간 조국의 식물들과 가치있는 식물자원을 풍토순화하여 보존하면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 및 교육교양기지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전변되였다.

중앙식물원에서는 조국의 각이한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심고 연구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식물들도 풍토순화시켜 나라의 식물자원을 늘이였다.

중앙식물원에는 **김일성**화온실, **김정일**화온실, 선물식물구, 식물분류구, 경제림구, 장미원, 약초원, 화초원, 국제친선식물관, 식물박물관, 식물표본관, 식물유전자원연구소 등이 있다. 이밖에도 지방에 삼지연식물원, 오가산식물원, 옹진식물원을 두고있다.

중앙식물원에서는 **김일성**화, **김정일**화원종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 해외동포들이 올린 식물과 조국의 식물들이 수많이 자라고있다.

중앙식물원의 식물분류구는 두개 구역으로 나눈다.

1구역에는 소나무과, 주목과, 측백나무과를 비롯한 바늘잎나무들과 녹나무과, 매자나무과를 비롯한 넓은잎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으며 2구역에는 피나무과와 자작나무과를 비롯한 잎지는 넓은잎키나무들이 분류학적 순차성에 따라 매 과식물단위로 조성되여있다.

경제림구에는 식용 및 약용가치가 큰 나무들인 큰열매보리수나무, 평양백살구나무, 큰열매찔광이나무 등이 있다. 원림풍치구에는 관상용가치가 큰 소나무와 전나무, 백송을 비롯한 바늘잎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있다. 그리고 목련, 칠엽수, 위성류를 비롯한 넓은잎키나무들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조팝나무, 두봉화를 비롯한 꽃관상떨기나무류들이 원림형성학적요구에 맞게 조성되여있다.

소나무군락을 위주로 하여 소나무와 신갈나무로 혼성군락을 이루고 여기에 싸리나무, 분지나무, 진달래 등과 각이한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식물생태구의 모습은 조국의 식물상을 그대

로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중앙식물원의 특산식물구에는 조국의 특산식물인 댕강나무, 미선나무, 구상나무 등이 있고 식용열매구에는 사과나무, 단벗나무, 왕다래나무를 비롯하여 식용가치가 큰 수십종의 과일나무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분류구1구역과 약초원에서는 천연기념물들인 대성산수삼나무, 대성산목란, 대성산향오동나무 등이 잘 보호관리되고있다.

중앙식물원에는 **김일성**화온실, **김정일**화온실, 선물식물온실들과 식물박물관이 있으며 선물식물구, 원림풍치구, 장미원을 비롯한 11개의 식물구역과 한해에 수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양묘장이 있다.

고구려시기의 력사유적이 많은 대성산지구의 자연풍치와 잘 어울려 사계절 자기의 독특한 풍치를 자랑하는 중앙식물원은 식물학연구 및 교육교양기지, 문화휴식장소로 조국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중앙식물원에는 이밖에도 다른 나라의 식물들을 풍토순화시키는 풍토순화구와 조국에서 재배되고있는 화초들을 자래우는 화초원, 각이한 장미류를 비롯하여 장미과에 속하는 수천그루의 식물들이 자라는 장미원이 있다.

약초원에서는 갖가지 약초들이 재배되고있다.

지금 식물원에서는 식물들을 보존하고 그 수명을 늘이는것과 함께 종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곳 관리자들은 매 나무들의 생물학적특성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식물들의 수명을 늘이기 위한 영양관리와 병해충예방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중앙식물원 식물유전자원연구소의 연구사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수십종의 새로운 식물들을 찾아냄으로써 식물의 다양성을 더 풍부히 하였다.

중앙식물원을 찾는 사람들은 조국의 각이한 식물들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들을 한눈에 보며 식물상식과 지식을 넓혀가고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최은혁

www.korean-books.com.kp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